

# KERI 경제동향과 전망

2021년 3분기

한국경제연구원

집필진

이승석 부연구위원

감수

조경엽 경제연구실 실장

〈 차례 〉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요 약 .....                 | v  |
| 제I장 최근 경제동향 .....         | 1  |
| 1. 경제성장 .....             | 3  |
| 2. 수출입(통관기준) 및 경상수지 ..... | 10 |
| 3. 고용 .....               | 16 |
| 4. 물가 .....               | 19 |
| 5. 금리와 환율 .....           | 23 |
| 제II장 국내 경제전망 .....        | 27 |
| 1. 대외 여건 .....            | 29 |
| 2. 2021년 국내 경제전망 .....    | 33 |

〈 표 차례 〉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〈표 I-1〉 주요 산업활동 지표 .....           | 9  |
| 〈표 II-1〉 세계 경제전망.....              | 30 |
| 〈표 II-2〉 세계 석유수급 전망 .....          | 31 |
| 〈표 II-3〉 해외 주요기관 유가(기준 유가) 전망..... | 32 |
| 〈표 II-4〉 전망의 주요 전제 .....           | 32 |
| 〈표 II-5〉 2021년 국내 경제전망.....        | 50 |

## 〈그림 차례〉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〈그림 I-1〉 실질GDP 증가율 추이                | 3  |
| 〈그림 I-2〉 주요 최종수요 항목별 증가율 추이          | 4  |
| 〈그림 I-3〉 부문별 GDP 성장 기여도              | 6  |
| 〈그림 I-4〉 산업생산                        | 8  |
| 〈그림 I-5〉 경기종합지수                      | 10 |
| 〈그림 I-6〉 수출증가율 및 일평균 수출액             | 11 |
| 〈그림 I-7〉 수입증가율 및 일평균 수입액             | 11 |
| 〈그림 I-8〉 통관기준 무역수지-수출-수입             | 12 |
| 〈그림 I-9〉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               | 13 |
| 〈그림 I-10〉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               | 14 |
| 〈그림 I-11〉 경상수지 항목별 증감                | 15 |
| 〈그림 I-12〉 서비스수지 항목별 증감               | 16 |
| 〈그림 I-13〉 경제활동참가율, 실업률, 취업자증가율       | 17 |
| 〈그림 I-14〉 고용률                        | 18 |
| 〈그림 I-15〉 산업별 취업자 증감(2020.7 →2021.7) | 18 |
| 〈그림 I-16〉 주요 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            | 20 |
| 〈그림 I-17〉 품목성질별 증가율                  | 20 |
| 〈그림 I-18〉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             | 21 |
| 〈그림 I-19〉 서울지역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증가율         | 22 |
| 〈그림 I-20〉 아파트 전세가격                   | 23 |
| 〈그림 I-21〉 한·미 기준금리와 한국의 시장금리         | 24 |
| 〈그림 I-22〉 원/달러, 원/100엔               | 25 |
| 〈그림 II-1〉 국제유가 추이                    | 31 |
| 〈그림 II-2〉 역사적 민간소비 증감률(1996~2016)    | 33 |
| 〈그림 II-3〉 소비자심리지수                    | 34 |
| 〈그림 II-4〉 최근 가계 소득 현황                | 35 |
| 〈그림 II-5〉 평균소비성향                     | 36 |
| 〈그림 II-6〉 가계대출 이자부담 추이               | 36 |
| 〈그림 II-7〉 역사적 설비투자 증감률(1996~2016)    | 37 |
| 〈그림 II-8〉 제조업 설비투자압력                 | 38 |
| 〈그림 II-9〉 업황전망                       | 38 |
| 〈그림 II-10〉 역사적 건설투자 증감률(1996~2016)   | 39 |

|   |    |
|---|----|
| 〈그림 II-11〉 건축허가 연면적 증가율 추이 .....        | 40 |
| 〈그림 II-12〉 역사적 수출 증감률(1996~2016) .....  | 41 |
| 〈그림 II-13〉 품목별 수출경기(EBSI) .....         | 42 |
| 〈그림 II-14〉 역사적 GDP 증감률(1996~2016) ..... | 43 |
| 〈그림 II-15〉 경상수지 항목별 전망 .....            | 45 |
| 〈그림 II-16〉 전세가격, 임금총액 .....             | 47 |
| 〈그림 II-17〉 수입물가, 기대인플레이션율 .....         | 47 |
| 〈그림 II-18〉 원/달러, 달러 인덱스 .....           | 48 |
| 〈그림 II-19〉 투자자별 주식 순매수 .....            | 49 |

## 요약

2021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확대에 따른 수출호조가 경제성장 흐름에 강력한 견인력을 발휘하며 3.9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,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지난해 -2.4%의 역(逆)성장을 기록했던 수출은 주요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및 적극적인 백신보급의 영향으로 교역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서며 올해는 수출성장률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. 더구나 반도체 단가상승, 국제유가 회복 등 교역여건이 개선되고, 바이오헬스·이차전지 같은 비주력 품목에 걸쳐 전품목이 기록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수출성장률은 9.6%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.

설비투자도 수출호조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. 반도체 등 IT부문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, 친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 역시 상승흐름이 이어지면서 설비투자는 9.0%의 높은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. 한편, 건설투자는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의 영향이 하반기에 일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의 역(逆)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(+)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됐으나, 여전히 산재해 있는 건축규제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공사차질로 실질적인 건설투자 회복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.

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, 주식·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에 힘입어 상반기 중 회복세가 확대되었던 민간소비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급격한 위축을 보이는 가운데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상환부담 증가 등 하방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.

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0.5%에서 올해 2.0%에 이르며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. 농축수산물 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, 국제원자재가격 및 국제유가의 고공행진, 그리고 집세 등 거주비 상승이 물가에 대한 상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물가상승은 물가안정목표(2.0%)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.

한편 원·달러환율의 경우, 美연준의 양적완화 기조 지속 및 미국 外 주요국의 경기개선에 따른 영향으로 약보합세를 보여오던 환율은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확대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현실화됨에 따라 美연준이 테이퍼링 시기를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중 강세흐름을 지속하며 1,145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.



## 제 I 장

# 최근 경제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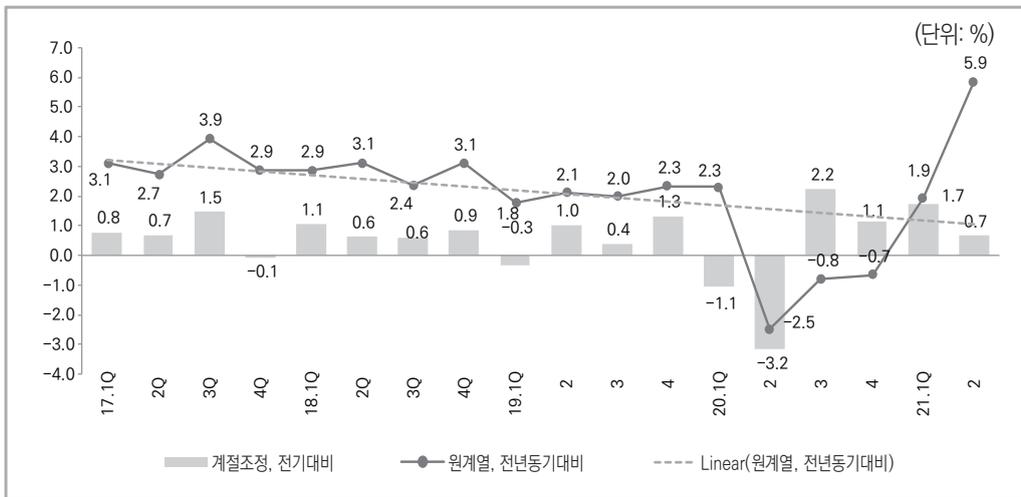
1. 경제성장
2. 수출입(통관기준) 및 경상수지
3. 고용
4. 물가
5. 금리와 환율



## 1. 경제성장

- '21년 2/4분기 국내총생산은 대내외 수요회복에 힘입어 내수와 수출이 모두 늘면서 회복세가 확대 ('21년 2/4분기, 전년동기비 5.9%, 전기대비 0.7%)
- 2/4분기 중 전기대비 성장률이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,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'13년 이후 최고치 기록
  - 전기비: -1.1%(2020.1/4) → -3.2%(2020.2/4) → 2.2%(2020.3/4) → 1.1%(2020.4/4) → 1.7%(2021.1/4) → 0.7%(2021.2/4)
  - 동기비: 2.3%(2020.1/4) → -2.5%(2020.2/4) → -0.8%(2020.3/4) → -0.7%(2020.4/4) → 1.9%(2021.1/4) → 5.9%(2021.2/4)

〈그림 I-1〉 실질GDP 증가율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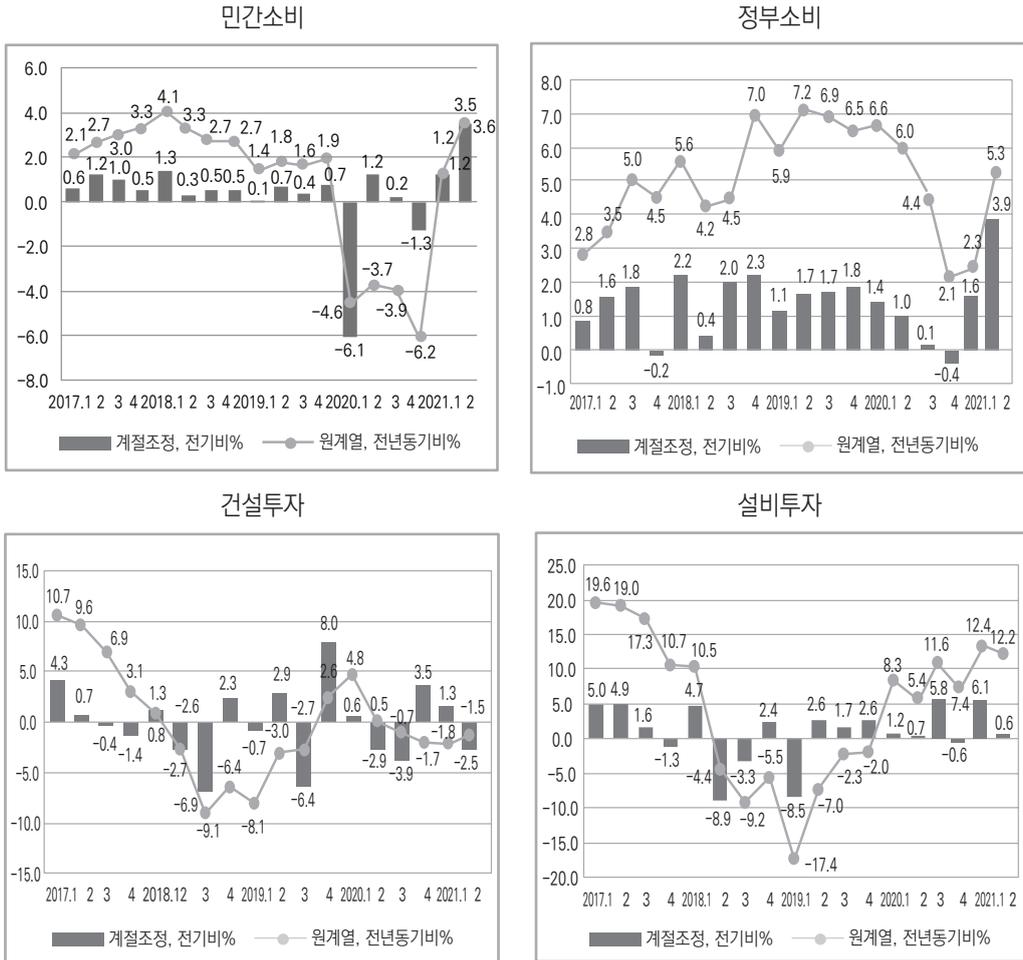
- (최종수요) '21년 2/4분기 민간소비가 예상을 웃도는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설비투자과 수출은 대외수요의 확대에 힘입어 견조한 상승세 지속. 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
- 민간소비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지속에도 불구하고, 소비심리 개선 및 기저효과의 복

합적 영향으로 양호한 상승세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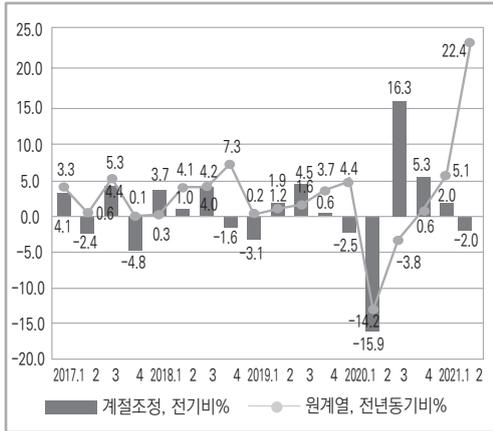
- 건설투자는 여전히 건축부문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감소흐름이 지속
-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문 및 기계류를 중심으로 회복세 지속
- 수출은 글로벌 교역회복에 힘입어 증가폭이 두자리수로 확대

〈그림 1-2〉 주요 최종수요 항목별 증감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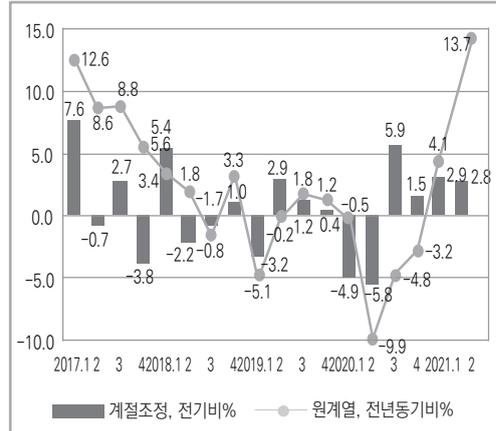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수출(재화+서비스)



수입(재화+서비스)


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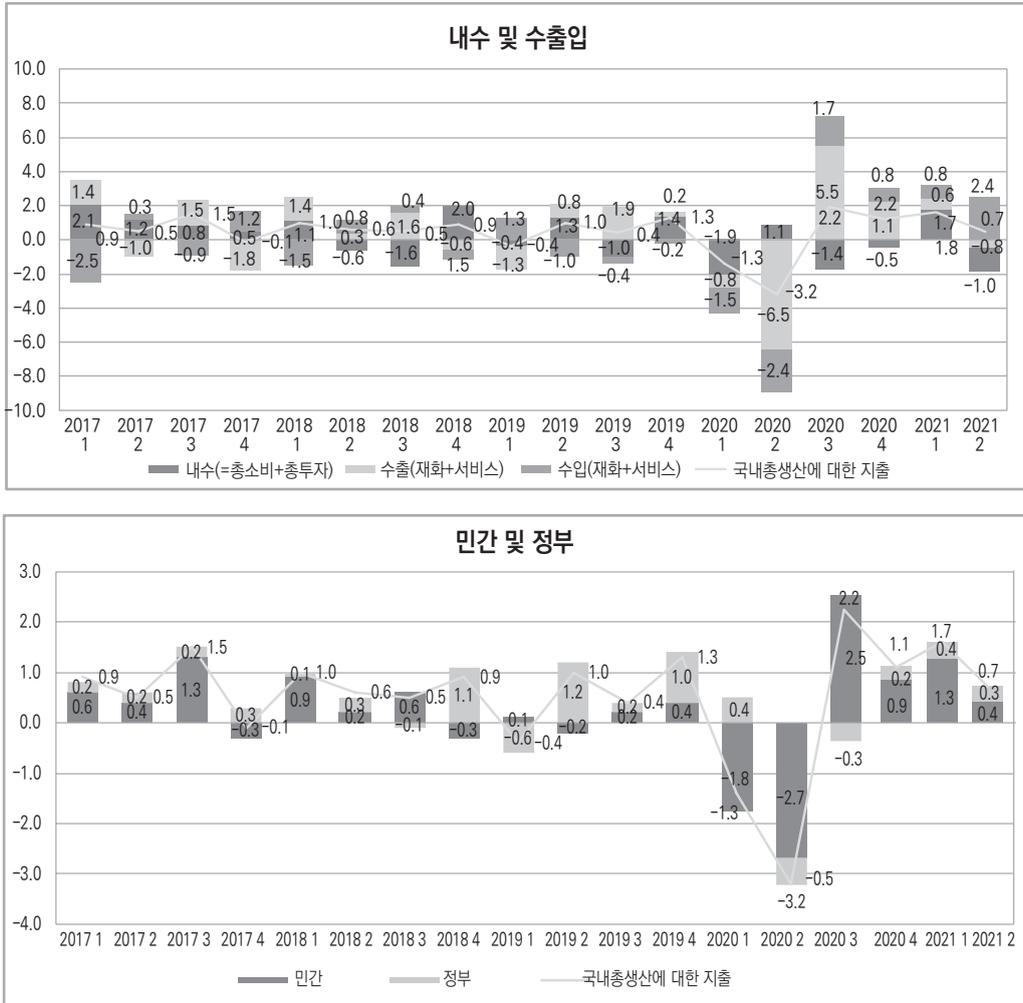
□ (기여도)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회복에 힘입어 내수의 기여도가 크게 증가

- 내수(총소비+총투자): -1.9%(2020.1/4) → 1.1%(2020.2/4) → -1.4%(2020.3/4) → -0.5%(2020.4/4) → 1.8%(2021.1/4) → 2.4%(2021.2/4)
  - ✓ 총소비: -2.9%(2020.1/4) → 0.7%(2020.2/4) → 0.1%(2020.3/4) → -0.7%(2020.4/4) → 0.8%(2021.1/4) → 2.3%(2021.2/4)
  - ✓ 총투자: 1.0%(2020.1/4) → 0.4%(2020.2/4) → -1.5%(2020.3/4) → 0.2%(2020.4/4) → 1.1%(2021.1/4) → 0.1%(2021.2/4)
- 순수출: 0.6%(2020.1/4) → -4.3%(2020.2/4) → 3.6%(2020.3/4) → 1.6%(2020.4/4) → -0.3%(2021.1/4) → -1.7%(2021.2/4)

○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기여도는 모두 지난 분기에 비해 감소

〈그림 1-3〉 부문별 GDP 성장 기여도

(단위: 계절조정 전기비, %p)



자료: 한국은행

- 7월 산업생산. 대내외 수요회복에 힘입어 회복흐름을 지속해 오던 산업생산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장기화로 7월 들어 증가세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전산업생산과 소비는 전기비 기준 동반 하락을 기록
- (생산) 전산업생산은 동기비로는 4.7% 증가하고 전기비로는 0.5% 감소. 광공업은 반도체, 비금속광물을 중심으로 회복세 지속. 서비스업은 금융·보험,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
- 전산업생산: (동기비) 1.6%(2020.1/4) → -3.4%(2020.2/4) → -0.5%(2020.3/4) → -1.5%(2020.4/4) → 1.5%(2021.1월) → 0.4%(2021.2월) → 5.7%(2021.3월) → 8.5%(2021.4월) → 6.9%(2021.5월) → 6.5%(2021.6월) → 4.7%(2021.7월)
  -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(34.4%), 비금속광물(13.3%)이 늘면서 7.6% 증가. 자동차는 3.4% 감소
    - ✓ 전체 제조업: (동기비) -0.6%(2020.1/4) → -7.0%(2020.2/4) → 4.7%(2020.3/4) → -0.1%(2020.4/4) → 7.7%(2021.1월) → 0.9%(2021.2월) → 4.5%(2021.3월) → 13.0%(2021.4월) → 14.8%(2021.5월) → 11.8%(2021.6월) → 7.6%(2021.7월)
    - ✓ 주요 증가 업종(동기비): 반도체(34.4%), 비금속광물(13.3%)
    - ✓ 주요 감소 업종(동기비): 기타운송장비(-11.6%), 자동차(-3.4%)
  -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장기화로 숙박·음식업에서 줄었으나 금융·보험 및 도소매업 등에서 늘면서 전체적으로는 4.2% 증가
    - ✓ 전체 서비스업: (동기비) -1.1%(2020.1/4) → -3.4%(2020.2/4) → -1.7%(2020.3/4) → -2.0%(2020.4/4) → -1.8%(2021.1월) → 0.8%(2021.2월) → 7.8%(2021.3월) → 8.4%(2021.4월) → 4.2%(2021.5월) → 5.0%(2021.6월) → 4.2%(2021.7월)
    - ✓ 주요 증가 업종(동기비): 금융·보험(7.4%), 도소매(6.1%)
    - ✓ 주요 감소 업종(동기비): 숙박·음식업(-7.5%), 전문·과학·기술(-2.0%)
- (소비)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7.9% 증가. 전기대비로는 내구재와 준내구재의 판매가 모두 줄면서 0.6% 감소
- 전체소매판매: (동기비) -2.9%(2020.1/4) → 1.9%(2020.2/4) → 1.8%(2020.3/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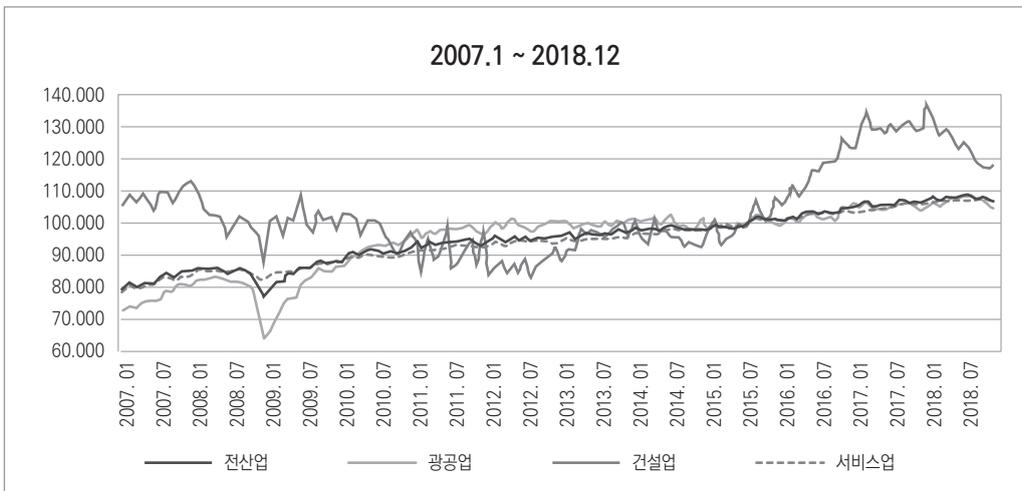
→ -1.2%(2020.4/4) → 0.0%(2021.1월) → 8.2%(2021.2월) → 10.9%(2021.3월)  
 → 8.6%(2021.4월) → 3.1%(2021.5월) → 1.6%(2021.6월) → 7.9%(2021.7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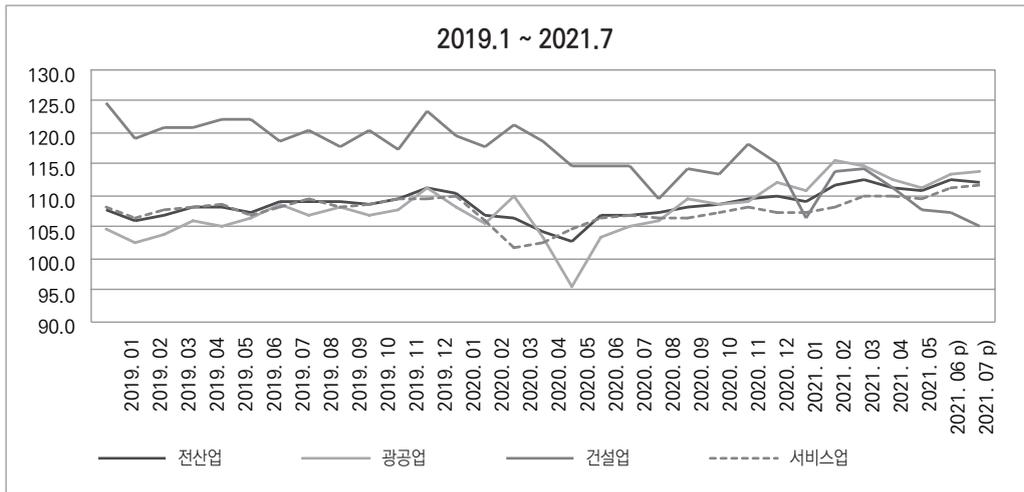
○ (투자) 설비투자는 수출증가에 힘입어 기계류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. 건설투자는 부진한 흐름 지속

- 설비투자: (동기비) 7.0%(2020.1/4) → 6.3%(2020.2/4) → -0.5%(2020.3/4) → 2.9%(2020.4/4) → 19.6%(2021.1월) → 7.1%(2021.2월) → 9.5%(2021.3월) → 16.8%(2021.4월) → 11.2%(2021.5월) → 9.9%(2021.6월) → 11.7%(2021.7월)
- 건설투자: (동기비) 0.3%(2020.1/4) → -4.1%(2020.2/4) → -1.6%(2020.3/4) → -5.3%(2020.4/4) → -8.1%(2021.1월) → -8.3%(2021.2월) → -5.7%(2021.3월) → -1.8%(2021.4월) → -6.8%(2021.5월) → -5.6%(2021.6월) → -8.1%(2021.7월)

〈그림 1-4〉 산업생산

(단위: 지수(계절조정))





자료: 통계청

〈표 I-1〉 주요 산업활동 지표

(단위: 전년동월(기)비 %, 괄호 안의 숫자는 전기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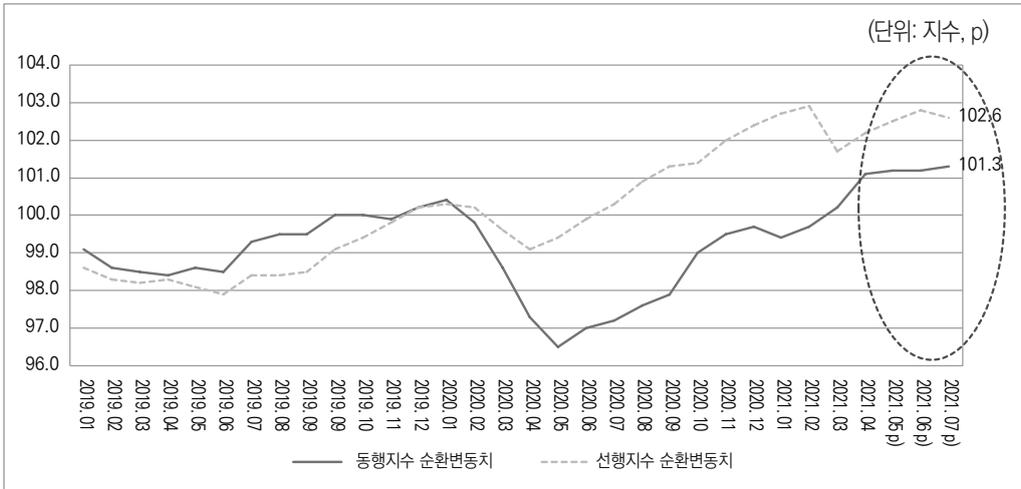
|    |       | 2019년 | 2020년 |                | 2021년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|       | 연간    | 연간    | 2/4            | 7월             | 2/4            | 7월 p)          |
| 생산 | 전산업   | 1.0   | -1.2  | -3.7<br>(-3.0) | -1.8<br>(0.3)  | 7.2<br>(0.4)   | 4.7<br>(-0.5)  |
|    | 제조업   | 0.5   | -0.3  | -6.0<br>(-6.9) | -2.6<br>(2.3)  | 13.2<br>(-1.2) | 7.6<br>(0.0)   |
|    | 서비스업  | 1.4   | -2.0  | -3.4<br>(-1.3) | -1.2<br>(0.4)  | 5.8<br>(1.7)   | 4.2<br>(0.2)   |
|    | 평균가동률 | 73.2  | 71.3  | 66.9           | 70.2           | 73.4           | 74.1           |
| 소비 | 소매판매  | 2.4   | -0.2  | 2.0<br>(5.9)   | 0.6<br>(-6.1)  | 4.4<br>(2.7)   | 7.9<br>(-0.6)  |
|    | 투자    | 설비투자  | -5.7  | 6.0            | 5.8<br>(2.7)   | 7.4<br>(-0.5)  | 12.4<br>(0.5)  |
|    |       | 건설기성  | -2.3  | -4.1           | -5.5<br>(-2.9) | -3.7<br>(-0.2) | -5.3<br>(-2.4) |

자료: 통계청

○ (경기) 점진적으로 증가해 오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

각 103.6과 101.3를 기록하며 최근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모습

〈그림 1-5〉 경기종합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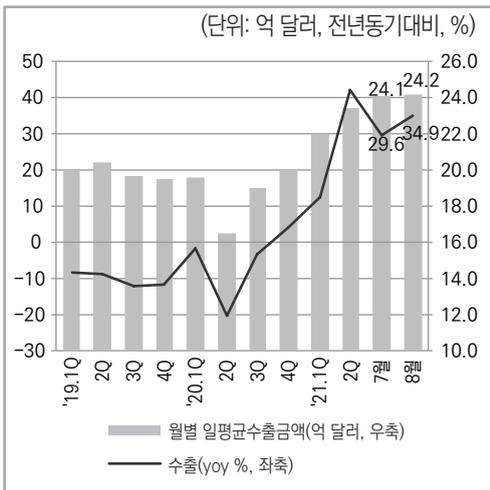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

## 2. 수출입(통관기준) 및 경상수지

- 무역수지 흑자 2021년 2분기 78.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8.4억 달러 증가(전기대비 25.7억 달러 감소)
  - 2021년 2/4분기 수출은 반도체, 자동차,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 수출품목들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화학과 철강 제품까지 50%를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높은 실적을 기록
  - 수입 역시 소비재·중간재·자본재 모두 고르게 증가하며 큰 폭 증가
  - 2021년 2/4분기 무역수지 흑자 78.1억 달러로 수출호조에 불구하고 수입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분기 대비 흑자폭은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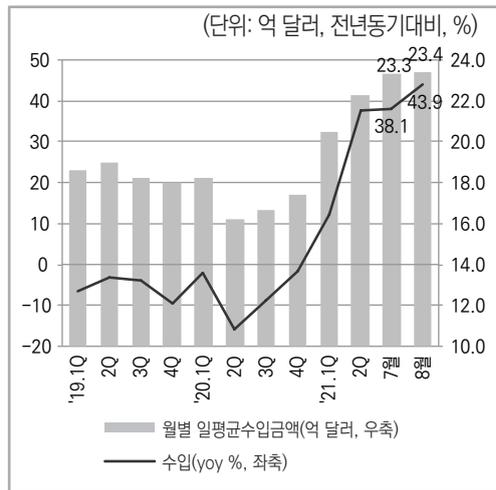
- 수출은 1,56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42.0% 증가
- 수입은 1,48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7.5% 증가
  - ✓ 2021년 7월 수출 554.3억 달러(전년동기대비 29.6% 증가, 역대 7월 최고치), 수입 536.6억 달러(전년동기대비 38.1% 증가)로 무역수지 흑자 17.7억 달러 기록
  - ✓ 2021년 8월 수출 532.2억 달러(전년동기대비 34.9% 증가, 역대 8월 최고치), 수입 515.6억 달러(전년동기대비 43.9% 증가)로 무역수지 흑자 16.7억 달러 기록

〈그림 1-6〉 수출증가율 및 일평균 수출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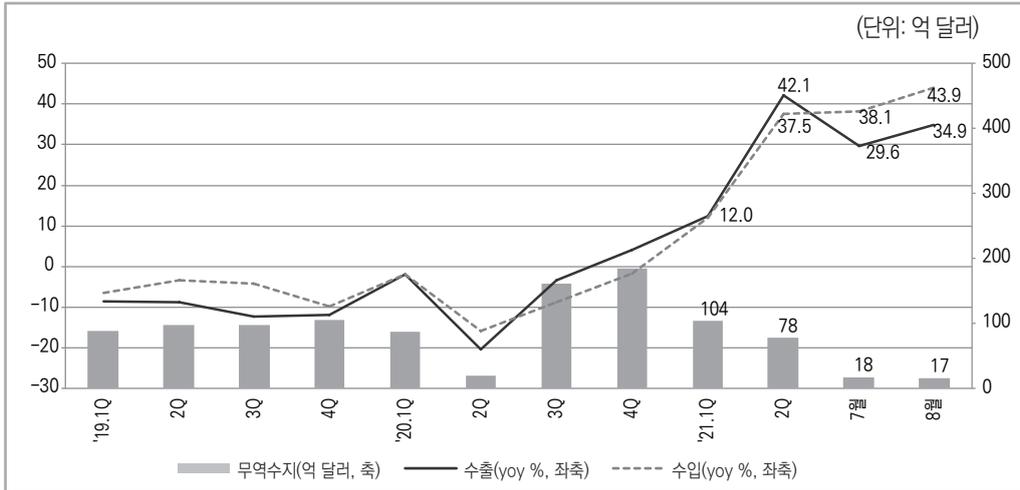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관세청

〈그림 1-7〉 수입증가율 및 일평균 수입액

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관세청

〈그림 1-8〉 통관기준 무역수지-수출-수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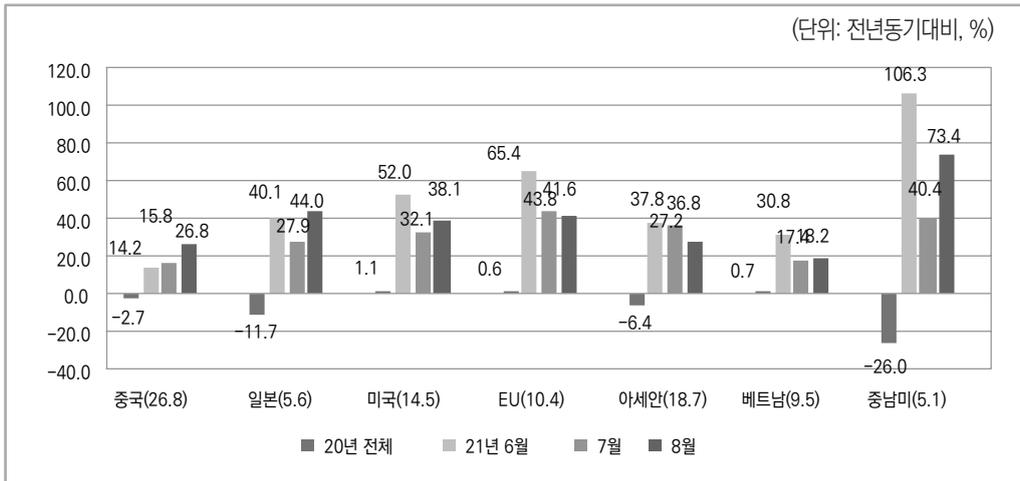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관세청

- (지역별 수출)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및 각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부양 노력에 힘입어 지역별 수출은 4대 시장(미국, 중국, EU, 아세안)에 대한 수출이 모두 증가
  - 미국: 경기회복세가 예상을 웃도는 수준에 이르게 된 영향으로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대미수출이 빠르게 확대
    - ✓ 주요 수출증가품목: 반도체, 이차전지<sup>1)</sup>, 일반기계
  - 중국: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부양 정책에 힘입어 소비가 빠르게 개선되며 대중수출 증가
    - ✓ 주요 수출증가품목: 반도체, 석유화학, 무선통신기기<sup>2)</sup>
  - 유로: 코로나19 선박, 바이오헬스 수출에 힘입어 對EU 수출액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기록
    - ✓ 주요 수출증가품목: 자동차, 차부품, 철강
  - 일본: 코로나 확진세 심화에도 불구하고 대일수출은 석유제품과 철강을 중심으로 증가
    - ✓ 주요 수출증가품목: 석유제품, 철강

1) 글로벌 전기차 업체와의 협업증가로 이차전지 수출 3배 증가

2)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영향

〈그림 I-9〉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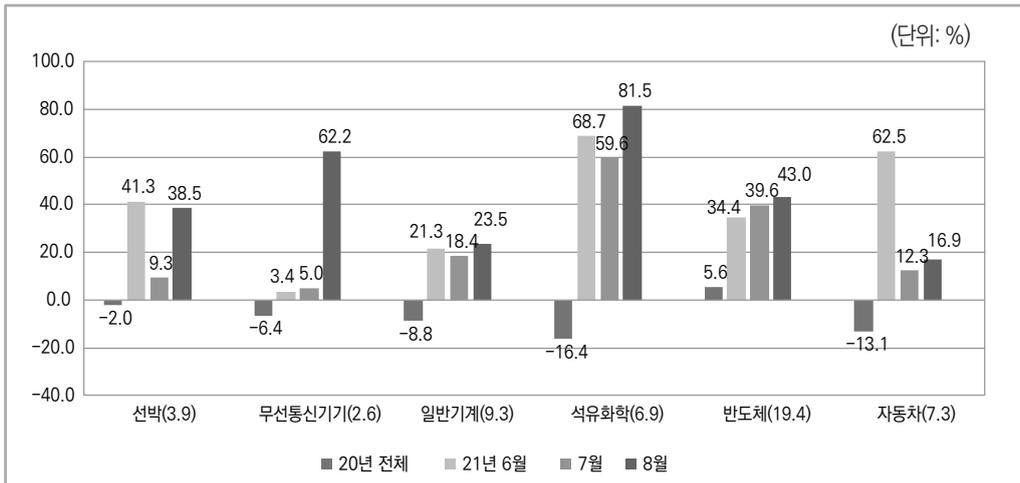
주: ( ) 내 수치는 2020년 기준 지역별 수출비중

자료: 한국무역협회, 통계청

- (품목별 수출) 반도체, 석유화학,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품목이 기록적인 실적을 보인 가운데 바이오헬스, 이차전지 등 신성장 품목들 역시 높은 상승세 지속하면서 3개월 연속 15대 품목이 모두 두자리수 증가 기록
  - 반도체: 대형 데이터센터 기업들의 서버투자가 확대로 서버용 메모리 수요확대가 본격화되는 가운데, 글로벌 공급부족 장기화로 인한 단가상승 압력까지 가해지면서 반도체 수출은 14개월 연속 증가해온 가운데 8월 수출액은 117억 달러 초과
    - ✓ '21년 상반기 메모리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: 한국(58.6%), 미국(27.3%), 일본(7.8%), 대만(4.3%)
    - ✓ 특히, 신규 CPU 출시와 주요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서버증설에 따라 고용형 D램 수요가 확대
  - 자동차: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 등 하방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및 SUV차량 수요증가 및 단가상승의 영향으로 미국, EU 등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수출호조 지속
  - 일반기계: 주요국의 투자 재개에 따라 건설기계류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IT 관련 기계류 역시 수출 호황

- 석유화학: 국내 증설설비 가동,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단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월수출액 기준 역사상 최고치 기록
  - ✓ 현재 반도체에 이은 2위 수출품목
  - ✓ 국제유가 상승 이외에도 위생용품, 포장재 등 비대면 생활을 위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크게 확대
- 바이오헬스: 진단키트<sup>3)</sup> 수출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 빠른 성장세 지속
  - ✓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의한 빠르고 정확한 정밀 진단키트 수요가 확대

〈그림 1-10〉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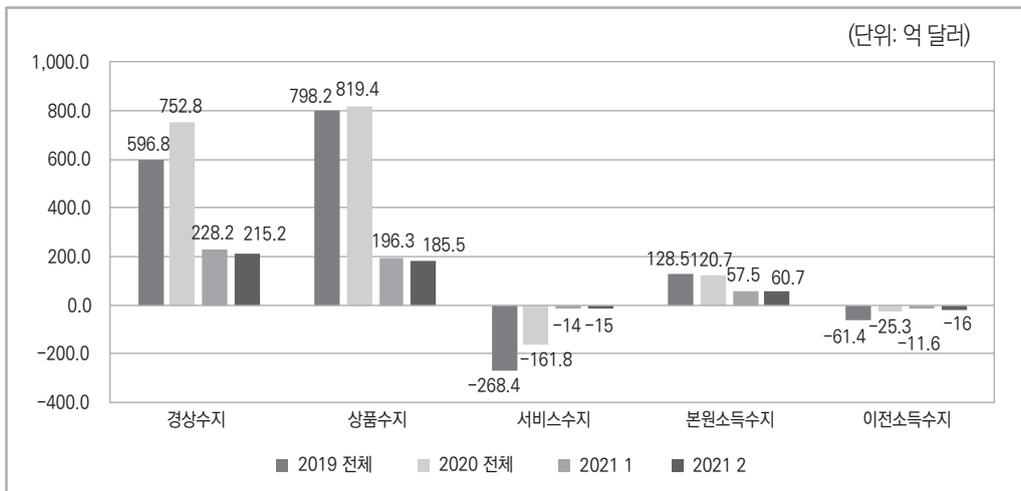
주: ( )내 수치는 2020년 기준 품목별 수출비중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3)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의한 빠르고 정확한 정밀 진단키트 수요가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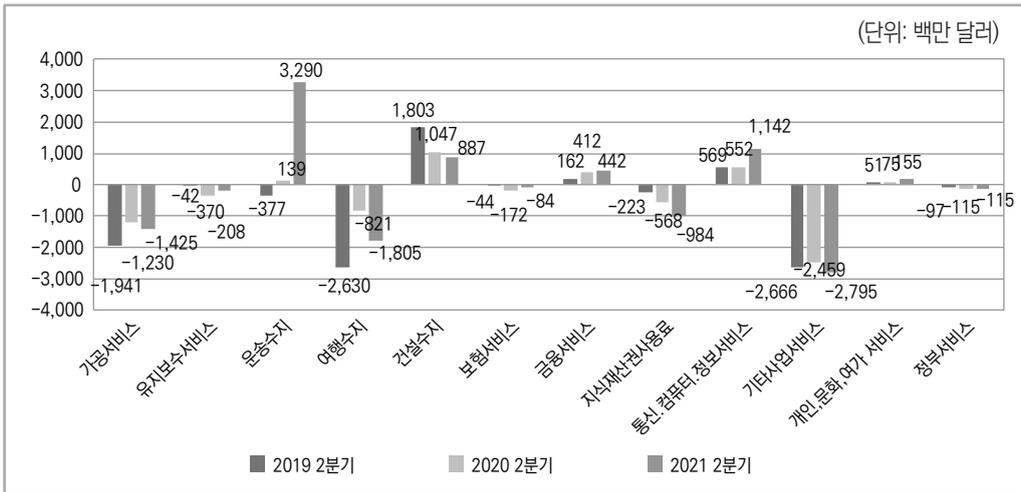
- 2021년 2/4분기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와 서비스수지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며 215.2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
- 상품수지가 양호한 흑자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, 서비스수지의 적자폭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경상수지는 215.2억 달러 흑자를 기록
  - 반도체를 비롯한 IT품목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 기록
  - 서비스수지 적자는 여행수지의 적자감소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20.1억 달러 감소한 -15억 달러
  - 본원소득수지 배당소득 증가에 기인하여 지난 분기에 비해 흑자 소폭 확대(+3.2억 달러)
  - 이전소득수지 해외송금 증가의 영향으로 적자 소폭 확대(-4.4억 달러)

〈그림 I-11〉 경상수지 항목별 증감



자료: 한국은행

〈그림 I-12〉 서비스수지 항목별 증감



자료: 한국은행

### 3. 고용

□ 고용시장. 2021년 7월 기준, 취업자 2,764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54만 명 증가. 고용률 61.3%, 실업률은 3.2% 기록

- 고용률(취업자/생산가능인구)은 61.3%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0.8%p 상승
  - 고용률(%): 60.0('20.1) → 60.0('20.2) → 59.5('20.3) → 59.4('20.4) → 60.2('20.5) → 60.4('20.6) → 60.5('20.7) → 60.4('20.8) → 60.3('20.9) → 60.4('20.10) → 60.7('20.11) → 59.1('20.12) → 57.4('21.1) → 58.6('21.2) → 59.8('21.3) → 60.4('21.4) → 61.2('21.5) → 61.3('21.6) → 61.3('21.7)
  - 청년층(15~29세) 고용률은 45.5%로 전년동기대비 2.8%p 상승
- 실업률(실업자/경제활동인구): 실업률은 3.2%로 전년동기대비 0.8%p 감소
  - 실업률(%): 4.1('20.1) → 4.1('20.2) → 4.2('20.3) → 4.2('20.4) → 4.5('20.5) → 4.3('20.6) → 4.0('20.7) → 3.1('20.8) → 3.6('20.9) → 3.7('20.10) →

3.4('20.11) → 4.1('20.12) → 5.7('21.1) → 4.9('21.2) → 4.3('21.3) → 4.0('21.4)  
 → 4.0('21.5) → 3.8('21.6) → 3.2('21.7)

- 청년층(15~29세) 실업률은 7.2%로 전년동기대비 2.5%p 하락

○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54만 명 증가한 2,764만 명 기록.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및 30대의 감소세는 지속된 반면, 40~50대 및 제조업의 취업자가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지속하는 점은 고무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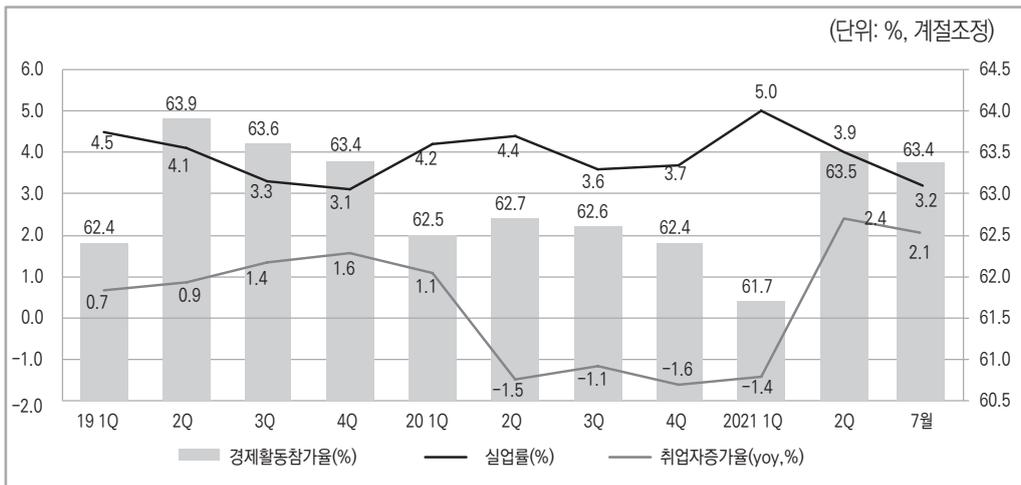
- 산업별로는 보건및 사회복지서비스업(+23.7만), 운수 및 창고(+12.1만), 건설업(+9.2만), 제조업(+6천) 부문에서 증가한 반면,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숙박 및 음식(-1.2만), 도소매업(-18.5만) 등은 감소세 지속

-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취업자가 36.1만 명 20대 16.6만 명 40대 1.1만, 50대에서 10.9만 명 늘어난 반면, 30대에서는 12.2만 명 감소

-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는 36.1만 명, 임시근로자는 각각 35.2만 명 증가한 반면, 일용근로자는 17만 명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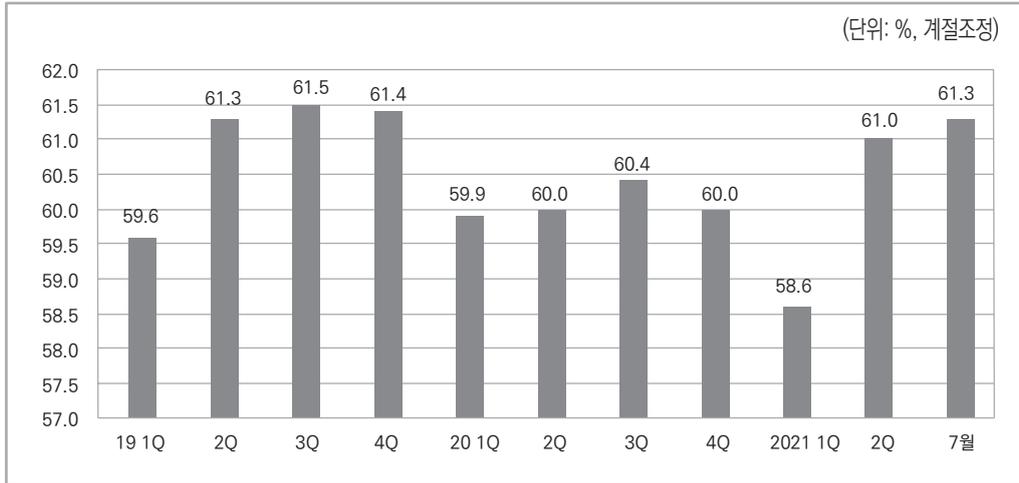
○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63.3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.2만 명 증가

〈그림 I-13〉 경제활동참가율, 실업률, 취업자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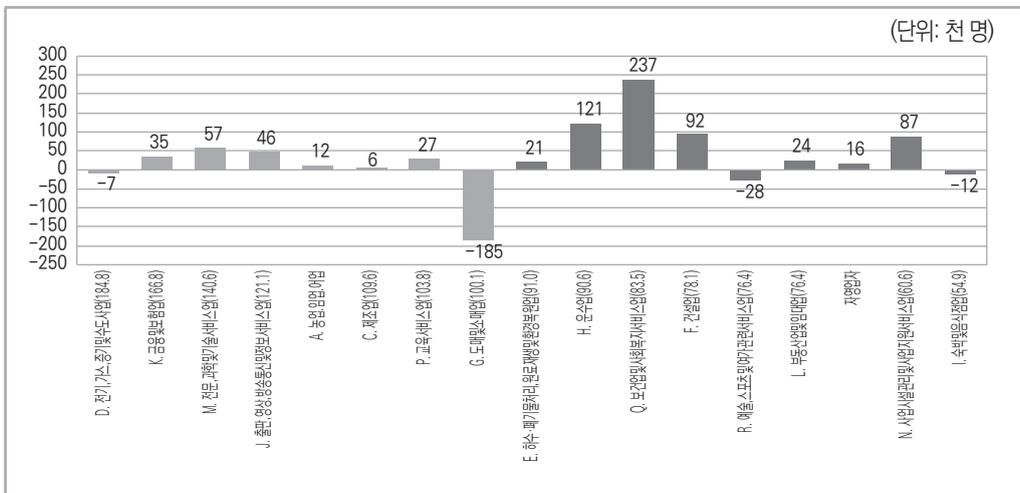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

〈그림 1-14〉 고용률



자료: 한국은행

〈그림 1-15〉 산업별 취업자 증감(2020.7 → 2021.7)



주: ( )내 수치는 2020년 산업별 임금수준(전산업 평균=10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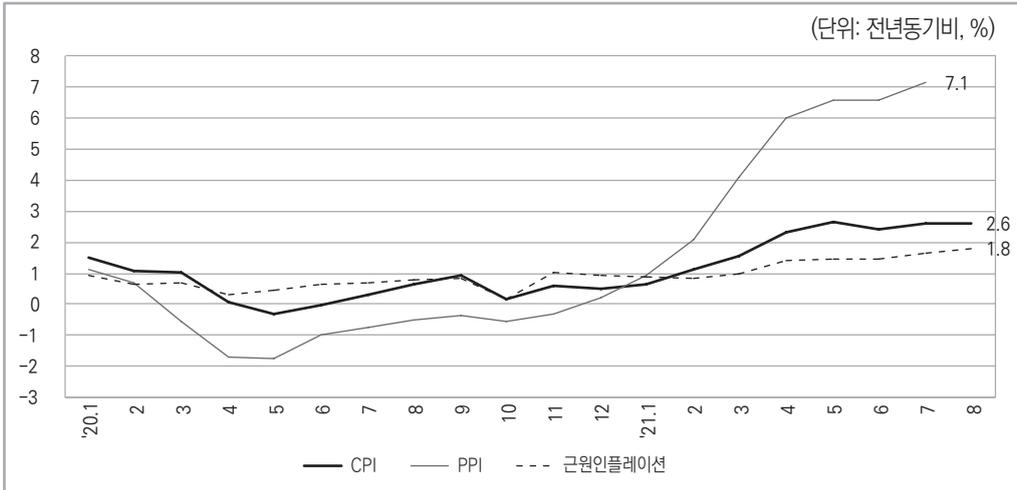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

## 4. 물가

-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, 경기개선에 따른 수요압력 상승에 기저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생산자물가 및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이 확대
  - 대외요인으로는 배럴당 60달러 중반 수준에 이른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, 미국의 가파른 경기회복에 기인한 원·달러 환율 상승이 국내 물가의 상방요인으로 작용
  - 대내요인으로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여전히 지속중인 가운데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압력 개선이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소비자물가는 2% 중반 수준을 초과하며 2.6% 기록
    - 기대인플레이션율: 1.8%('21.1월) → 2.0%('21.2월) → 2.1%('21.3월) → 2.1%('21.4월) → 2.2%('21.5월) → 2.3%('21.6월) → 2.3%('21.7월) → 2.4%('21.8월)
    - 생활물가지수<sup>4</sup>(전년동월비): 0.3%('21.1월) → 1.2%('21.2월) → 1.5%('21.3월) → 2.8%('21.4월) → 3.3%('21.5월) → 3.0%('21.6월) → 3.4%('21.7월) → 3.4%('21.8월)
  - 임대차<sup>3</sup>법에 따른 집세상승 역시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
  - 근원물가지수(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)는 상품 및 서비스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0.8%p 상승하며 1.7%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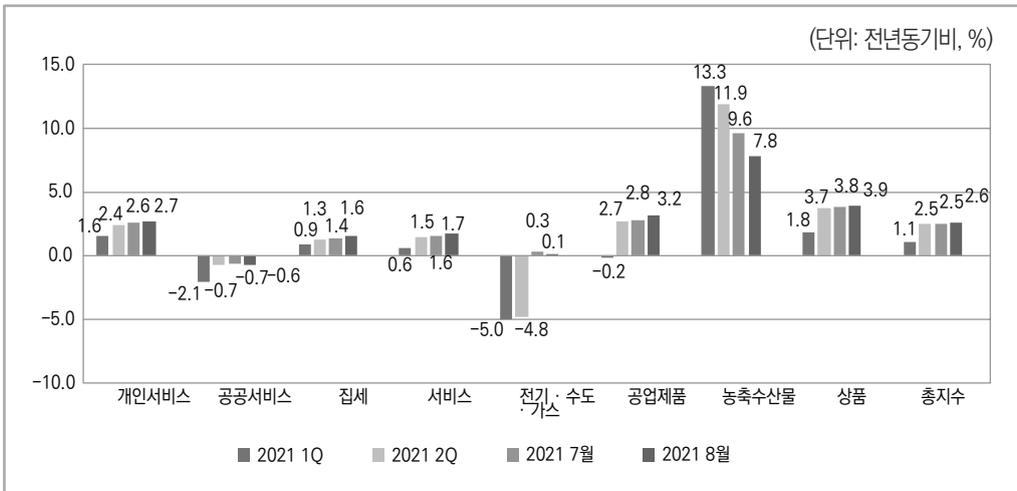
4) 전체 460개 품목 중 구입빈도 및 지출비중이 높은 141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

〈그림 I-16〉 주요 물가지수 증가율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

〈그림 I-17〉 품목성질별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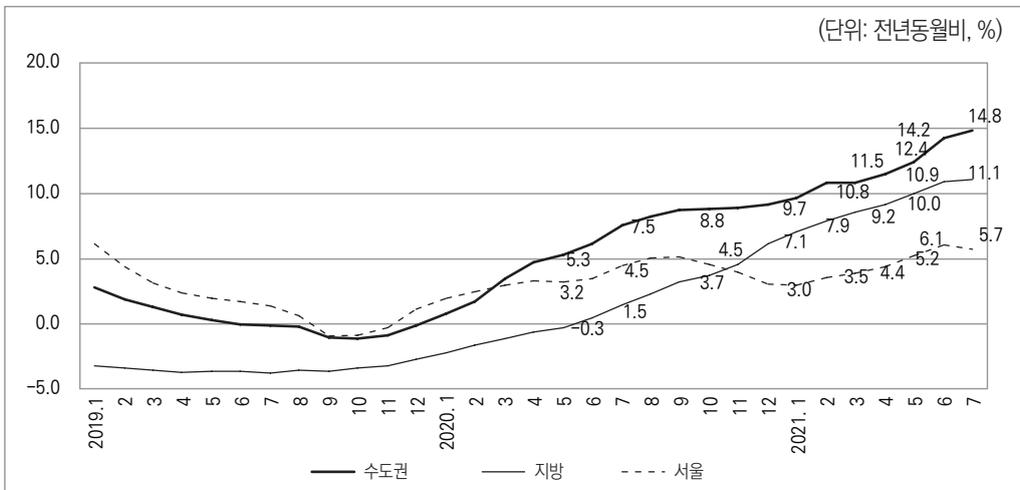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

□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.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9년 이후 최고치 기록. 전세가격은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매물부족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가파른 상승세 지속

○ 아파트(수도권) 매매가격 증가율: 0.8%(’20.1월) → 1.7%(’20.2월) → 3.5%(’20.3월) → 4.7%(’20.4월) → 5.3%(’20.5월) → 6.2%(’20.6월) → 7.5%(’20.7월) → 8.2%(’20.8월) → 8.7%(’20.9월) → 8.8%(’20.10월) → 8.9%(’20.11월) → 9.2%(’20.12월) → 9.7%(’21.1월) → 10.8%(’21.2월) → 10.8%(’21.3월) → 11.5%(’21.4월) → 12.4%(’21.5월) → 14.2%(’21.6월) → 14.8%(’21.7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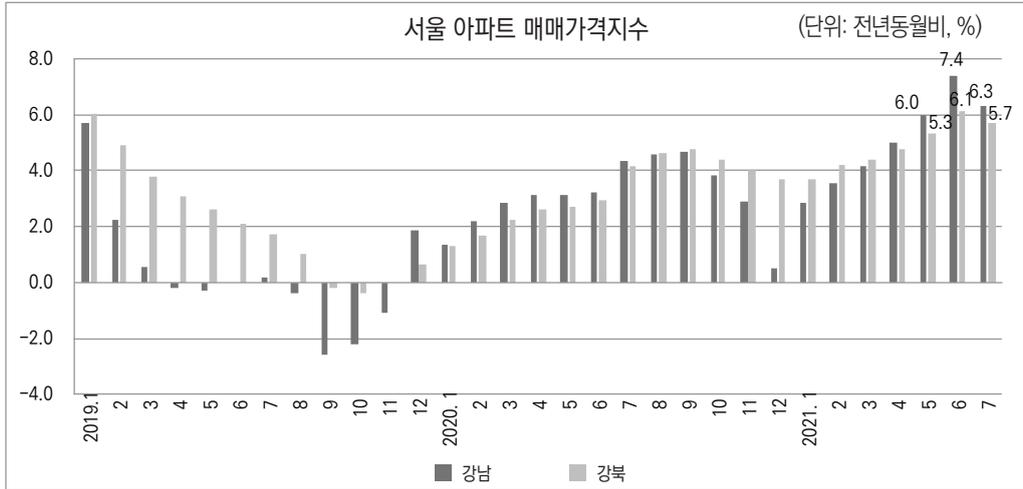
○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·재개발, 교통망 개선 등의 호재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보유세 기준일(6.1)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9년 이후 최고치 기록

〈그림 I-18〉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



자료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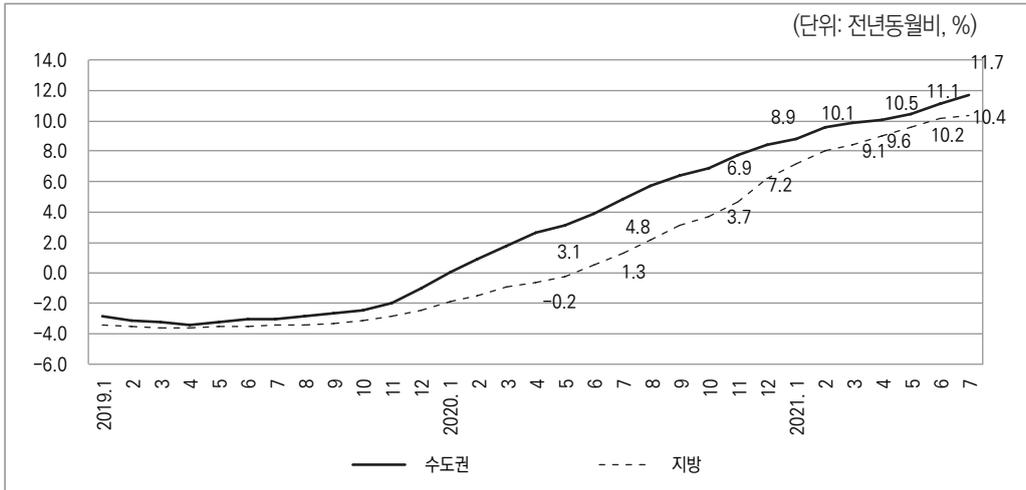
〈그림 I -19〉 서울지역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증가율



자료: 통계청

- 아파트(수도권) 전세가격 증가율: 0.0%(’20.1월) → 0.9%(’20.2월) → 1.8%(’20.3월) → 2.6%(’20.4월) → 3.1%(’20.5월) → 3.9%(’20.6월) → 4.8%(’20.7월) → 5.7%(’20.8월) → 6.4%(’20.9월) → 6.9%(’20.10월) → 7.7%(’20.11월) → 8.4%(’20.12월) → 8.9%(’21.1월) → 9.5%(’21.2월) → 9.9%(’21.3월) → 10.1%(’21.4월) → 10.5%(’21.5월) → 11.1%(’21.6월) → 11.7%(’21.7월)

〈그림 I-20〉 아파트 전세가격



자료: 통계청

- 아파트 전세가격은 임대차 3법(전월세신고제, 전월세상한제, 계약갱신청구권제)에 따른 전세매물 부족, 전세가격 폭등, 전세 대비 월세 비중 증가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면서 전세난이 지속
  - 전세가격 상승률은 2021년 6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수도권 11.1%, 서울 7.0% 상승하며, 인기지역의 30평대 아파트 전세가가 20억을 돌파하는 등 이른바 ‘20억 전세시대’가 기정사실화
  - 특히, 서울 일부 대규모 단지의 재건축 본격화에 따른 이주 증가가 주변 지역의 전세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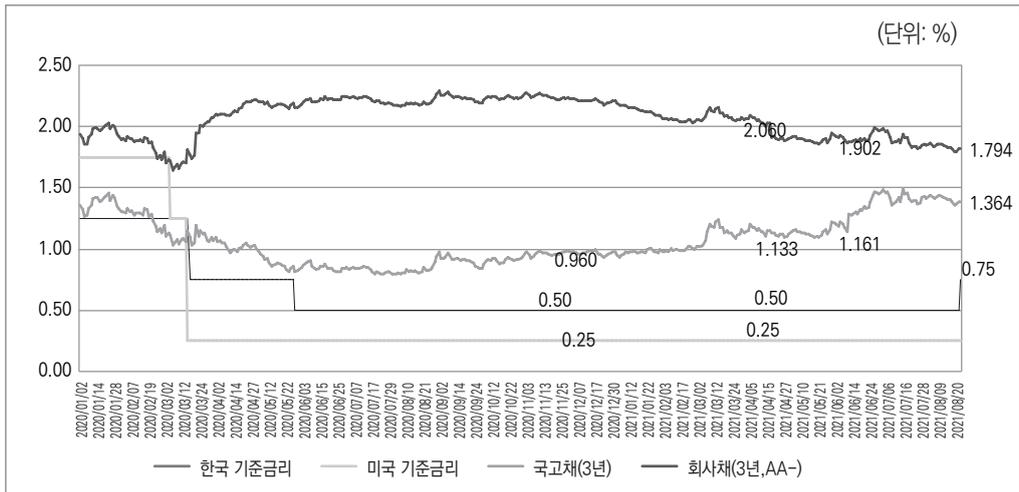
## 5. 금리와 환율

-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.25%p 선제적으로 인상하면서 한국의 기준금리는 역사상 최저금리였던 0.5%에서 17개월 만에 0.75%로 인상
- 시장금리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다소 희석되면서 국고채

금리는 상승, 회사채금리는 하락하며 금리차가 좁혀지는 현상이 지속

- 회사채(3년, AA-): 2.25%(‘20.11.17) → 2.23%(‘20.12.17) → 2.14%(‘21.1.15) → 2.04%(‘21.2.17) → 2.12%(‘21.3.17) → 2.06%(‘21.4.9) → 1.90%(‘21.5.26) → 1.97%(‘21.6.29) → 1.83%(‘21.7.27) → 1.82%(‘21.8.26)
- 다만,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심리를 반영하는 장·단기 스프레드는 아직 줄어들지 못하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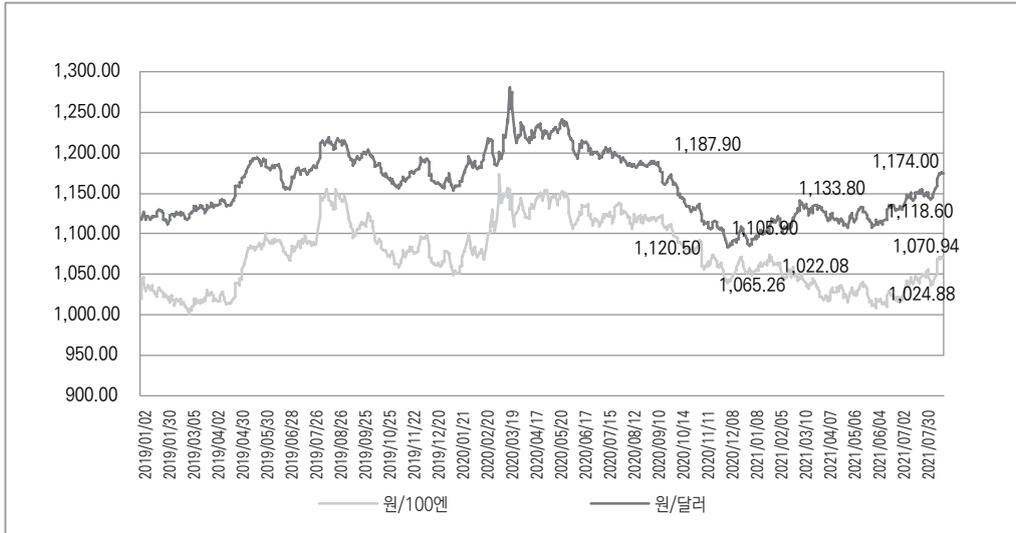
〈그림 1-21〉 한·미 기준금리와 한국의 시장금리



자료: 한국은행

- 원달러 환율.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기조 재확인, 미국 외 주요국들의 경기반등, 과도한 美재정적자 누적 우려 등으로 4월 이후 약세로 전환되었던 달러화는 5월중 美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(CPI 상승률: 4.2%(4월)→5.0%(5월))됨에 따라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를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달러화는 강세흐름으로 전환

〈그림 1-22〉 원/달러, 원/100엔



자료: 한국은행, 국제금융센터



## 제II장

# 국내 경제전망

1. 대외 여건
  - (1) 세계 경제성장
2. 2021년 국내 경제전망
  - (1) 경제성장
  - (2) 경상수지
  - (3) 물가
  - (4) 시장금리 및 원/달러 환율



# 1. 대외 여건

## (1) 세계 경제성장

- 세계경제는 코로나19 변이에 의한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에 따라 양호한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는 모습
  - (미국) GDP의 10% 수준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빠른 속도의 배신보급에 힘입어 고용이 빠르게 안정되고 소비가 확대되며 개선세를 이어가는 모습
    - GDP 성장률(전기비): 1.5%(1/4분기) → 1.6%(2/4분기)
    - 실업률: 6.1%(4월) → 5.4%(7월)
  - (중국) 미·중 무역갈등 양상의 지속 및 지지부진한 기업구조조정이 여전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 지속(GDP 성장률(동기비): 18.3%(1/4분기) → 7.9%(2/4분기))
  - (일본) 하계올림픽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2만명을 상회하고 도쿄 등 주요지역이 긴급사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감염병으로 인해 경기회복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(GDP 성장률(전기비): -0.9%(1/4분기) → 0.3%(2/4분기))
  - (유로지역) 코로나19 재확산 및 변이바이러스 확대로 봉쇄조치까지 내려졌던 유로지역은 2분기를 경과하며 백신접종이 확대와 봉쇄조치 완화에 힘입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(GDP 성장률(전기비): -0.3%(1/4분기) → 2.0%(2/4분기))
  - (신흥국) 기초 경제여건이 취약한 인도 등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,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차질 및 소비둔화의 영향으로 경기개선 속도가 더딘 흐름

〈표 11-1〉 세계 경제전망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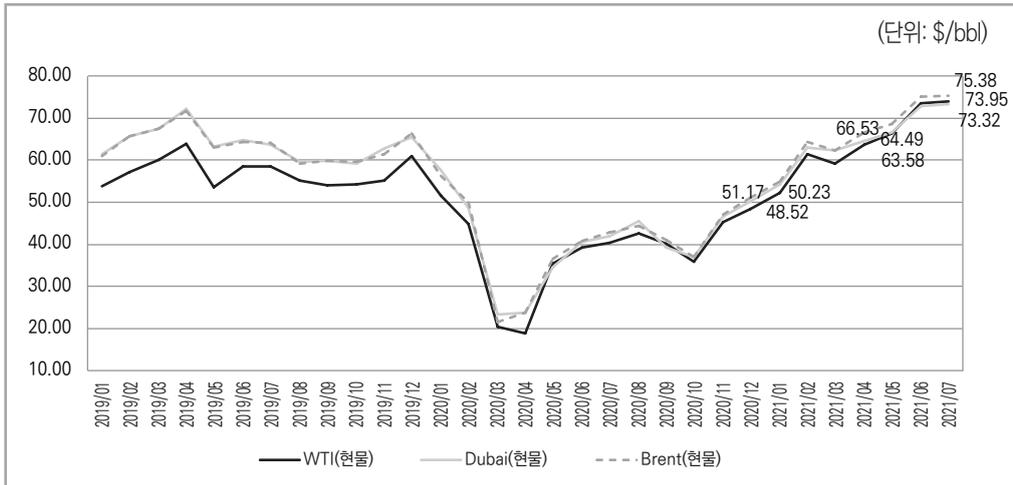
|           | 실적치         | 2021. 7월<br>현재 전망치 |            | 2021. 4월<br>전망치와 비교(%p) |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       |             | 2021               | 2022       | 2021                    | 2022       |
| <b>세계</b> | <b>-3.2</b> | <b>6.0</b>         | <b>4.9</b> | <b>0.0</b>              | <b>0.5</b> |
| 선진국       | -4.6        | 5.6                | 4.4        | 0.5                     | 0.8        |
| 미국        | -3.5        | 7.0                | 4.9        | 0.6                     | 1.4        |
| 영국        | -9.9        | 7.0                | 4.8        | 1.7                     | -0.3       |
| 유로존       | -6.6        | 4.6                | 4.3        | 0.2                     | 0.5        |
| 일본        | -4.8        | 2.8                | 3.0        | -0.5                    | 0.5        |
| 신흥개도국     | -2.2        | 6.3                | 5.2        | -0.4                    | 0.2        |
| 중국        | 2.3         | 8.1                | 5.7        | -0.3                    | 0.1        |
| 인도        | -8.0        | 9.5                | 8.5        | -3.0                    | 1.6        |
| 브라질       | -4.1        | 5.3                | 1.9        | 1.6                     | -0.7       |

자료: IMF World Economic Outlook(July 2021)

## (2) 국제 유가

- 주요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확대 및 주요 산유국 감산의 영향으로 현재 배럴당 70달러 중반 수준에 이른 상황

〈그림 II-1〉 국제유가 추이



자료: 한국석유공사(www.petronet.co.kr)

- (전망)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에 따른 원유수요 증대로 유가는 당분간 강세흐름을 이어나갈 예정. 다만, 하반기로 갈수록 OPEC+가 감산규모를 축소해 나가고 달러화 강세 역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유가의 높은 상승세는 점차 완화될 전망

〈표 II-2〉 세계 석유수급 전망

(단위: 백만bbl/d)

| 구분           | 2020  | 2021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| 2022   |
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  |       | 1/4   | 2/4   | 3/4   | 4/4    | 평균    | 평균     |
| 수요           | 92.30 | 94.60 | 96.71 | 99.06 | 100.06 | 97.63 | 101.25 |
| 공급           | 94.17 | 92.72 | 94.92 | 98.03 | 99.75  | 96.38 | 101.79 |
| OPEC 공급(원유)* | 30.71 | 30.37 | 30.78 | 32.46 | 33.59  | 31.81 | 34.18  |
| 비OPEC 공급     | 63.46 | 62.35 | 64.14 | 65.57 | 66.15  | 64.57 | 67.61  |
| 재고변동(공급-수요)  | -1.88 | 1.87  | 1.80  | 1.03  | 0.31   | 1.25  | -0.55  |

주: \*OPEC 12개국

자료: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August 2021

〈표 II-3〉 해외 주요기관 유가(기준 유가) 전망

(단위: \$/bbl)

| 기관<br>(전망시기)                | 유종    | 2020<br>평균 | 2021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2022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 1Q               | 2Q               | 3Q               | 4Q               | 평균               | 평균    |
| EIA<br>2021.08<br>(2021.05) | WTI   | 39.17      | 58.09<br>(58.09) | 66.19<br>(61.89) | 70.51<br>(59.19) | 68.45<br>(56.50) | 65.93<br>(57.24) | 62.37 |
| EIA<br>2021.08<br>(2021.05) | Brent | 41.69      | 61.12<br>(61.12) | 68.91<br>(65.25) | 73.07<br>(62.69) | 71.29<br>(60.00) | 68.71<br>(62.26) | 66.04 |

주: EIA(美 에너지정보청)

자료: EIA

□ 이상의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

〈표 II-4〉 전망의 주요 전제

|                    | 2020년   | 2021년              | 2022년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세계 경제성장률           | -3.2%   | 6.0% <sup>5)</sup> | 4.9%    |
| 국제유가(두바이유 기준, 배럴당) | \$40.43 | \$67.32            | \$64.21 |

5) OECD(2021.06) 5.8%, World Bank(2021.06) 5.6% 전망

## 2. 2021년 국내 경제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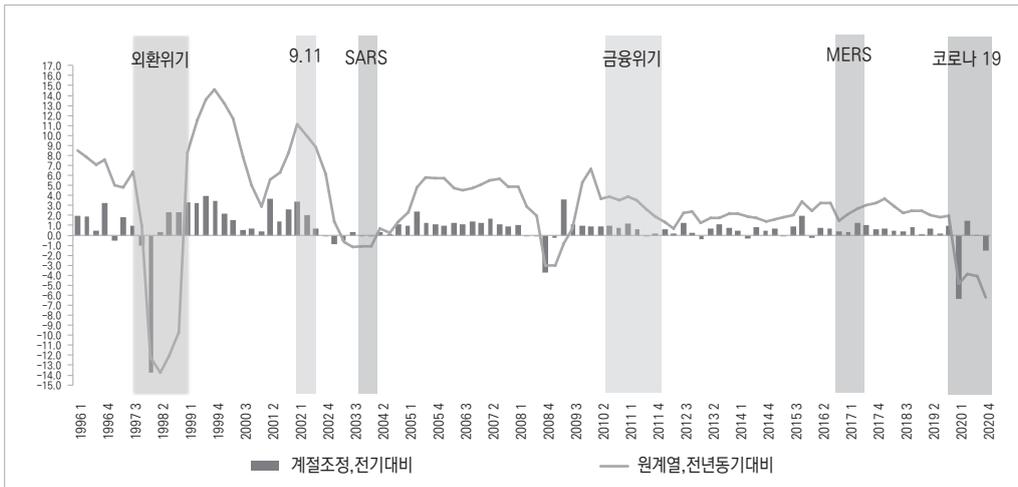
### (1) 경제성장

- 민간소비: 2020년 -5.0%(상반-4.4, 하반-5.5) → 2021년 2.8%(상반2.4, 하반3.3)
- 민간소비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, 주식·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, 보복소비심리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2/4분기까지 회복흐름을 이어갔으나,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하게 되면서 회복세가 약화

#### ▶ 주요 위기별 민간소비 증감률

- ✓ 외환위기: -11.6% ('98.1Q~'98.4Q, 평균)
- ✓ 사스: -0.7% ('03.2Q)
- ✓ 금융위기: -3.0% ('08.4Q~'09.1Q, 평균)
- ✓ 메르스: 1.9% ('14.2Q)
- ✓ 코로나19: -5.0 (2020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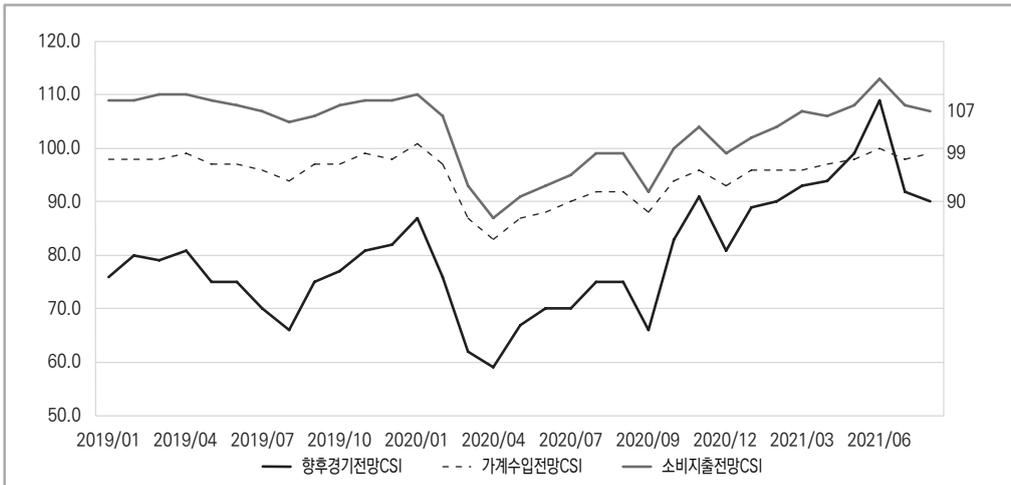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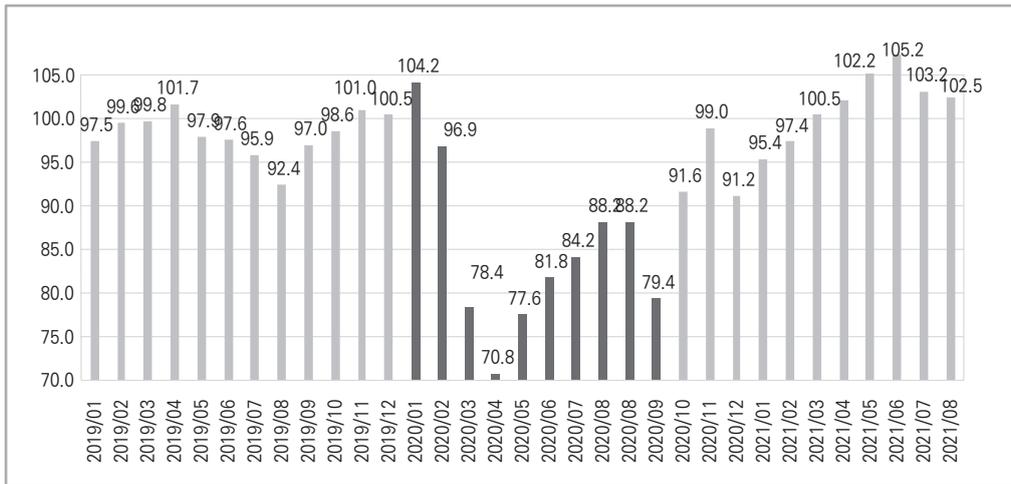
〈그림 II-2〉 역사적 민간소비 증감률(1996~2016)

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- ★ 금융위기 직후 회복률: 0.7%(2009.3Q) → 5.3%(2009.4Q) → 6.7%(2010.1Q) → 3.6%(2010.2Q) → 3.9%(2010.3Q)
-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장기화로 6월 이후 소비심리는 다시 위축하게 된 가운데 향후 경기 및 소비지출에 대한 기대감 역시 낮아지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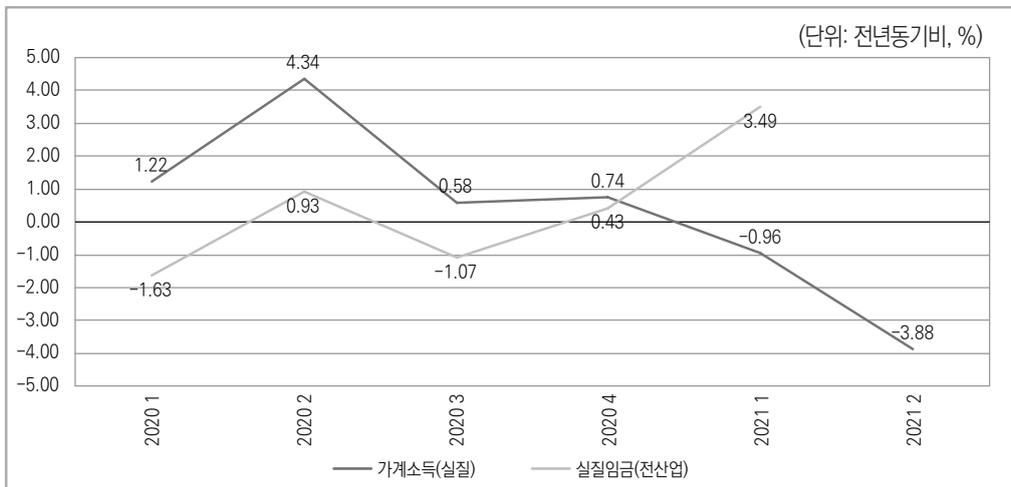
〈그림 II-3〉 소비자심리지수

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- 자영업 부진에 따른 소득기반 약화,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, 급격히 늘어난 가계신용에 대한 원리금 부담 상승 등 구조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 장기화의 영향까지 소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민간소비는 3%에 미치지 못할 전망
  - 소득기반 약화: 명목임금상승률 정체, 자영업자 소득 감소
  - 2020년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마이너스(-)로 전환된 가운데, 합계출산율은 0.84명으로 2017년 이후 4년 연속 감소 및 최저출산율 기록. 기대수명은 83.3명으로 10년전에 비해 3.3년 증가하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
  - 부채증가<sup>6)</sup> 7)로 인한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: '21년 2/4분기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,800조 원 돌파한 가운데 금리인상까지 이뤄지며 매분기 이자비용만 50조 원에 육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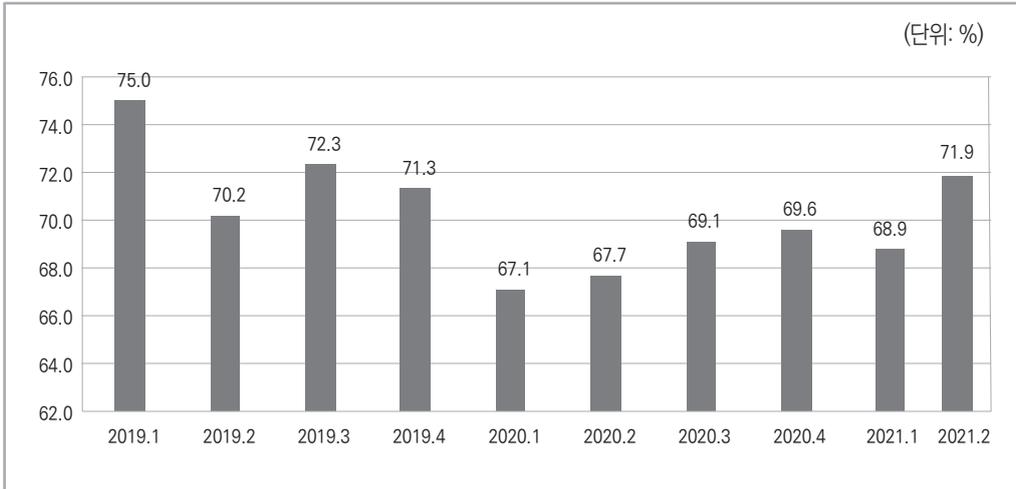
〈그림 II-4〉 최근 가계 소득 현황


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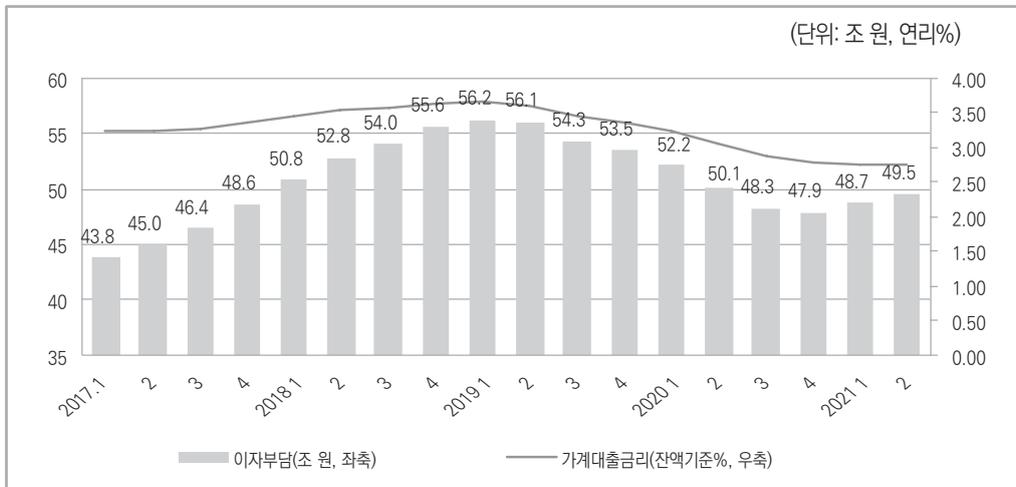
- 6) 2020년 가구당 평균자산은 4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3.1% 증가에 그친 반면, 가구당 평균부채는 8,256만 원으로 전년대비 4.4% 증가
- 7) 2/4분기 신용대출 잔액 757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4조 원 증가

〈그림 11-5〉 평균소비성향



자료: 한국은행

〈그림 11-6〉 가계대출 이자부담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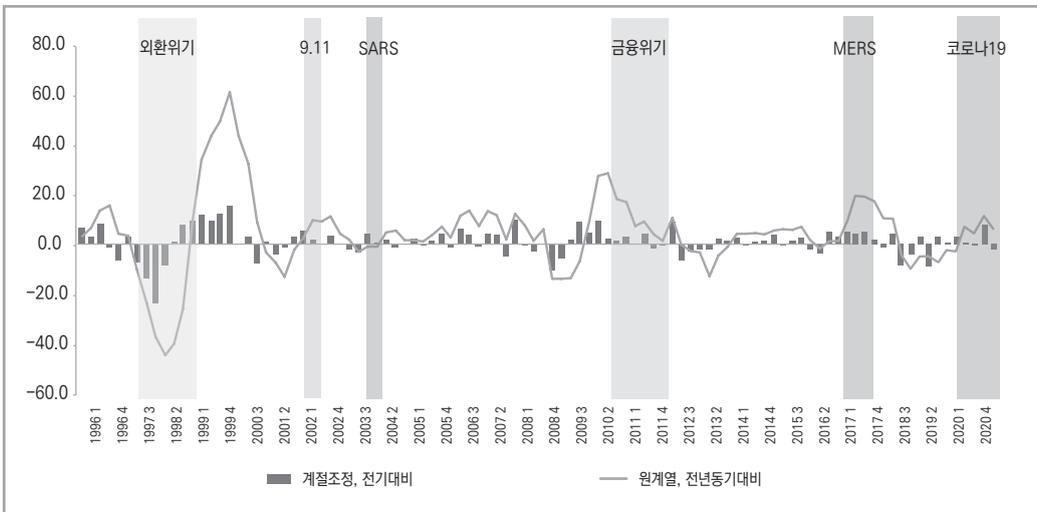
□ 설비투자: 2020년 6.8%(상반5.6, 하반8.0) → 2021년 9.0% (상반12.3, 하반5.7)

○ 설비투자는 코로나19 상황 수습 지연에도 불구하고 IT부문에 대한 공격적 투자와 신성장·친환경 부문 투자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

▶ 주요 위기별 설비투자 증감률

- ✓ 외환위기: -38.3% ('98.1Q~'98.4Q, 평균)
- ✓ 사스: 1.8% ('03.2Q)
- ✓ 금융위기: -14.4% ('08.4Q~'09.1Q, 평균)
- ✓ 메르스: 4.5% ('14.2Q)
- ✓ 코로나19: 6.8 (2020년)

〈그림 II-7〉 역사적 설비투자 증감률(1996~201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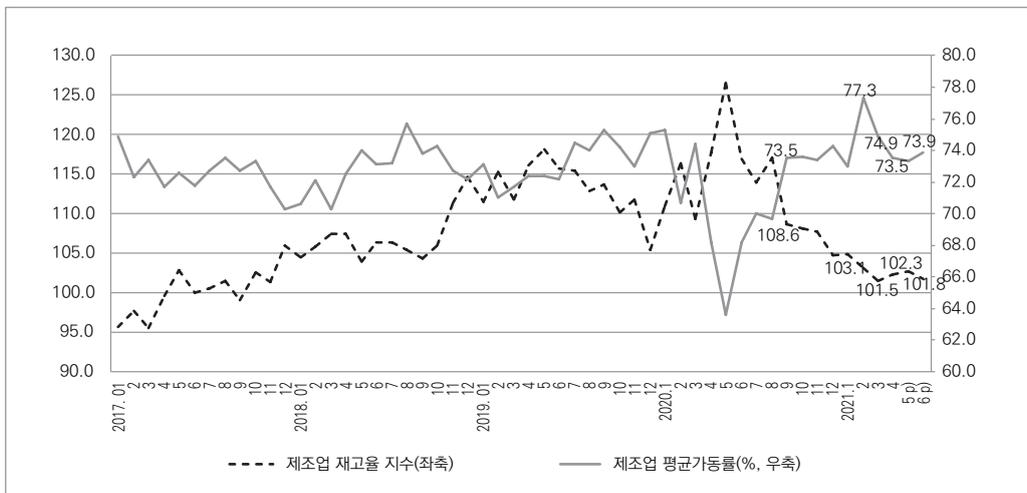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★ 금융위기 직후 회복률: -7.2%(2009.3Q) → 9.5%(2009.4Q) → 28.4%(2010.1Q)  
→ 29.5%(2010.2Q) → 18.7%(2010.3Q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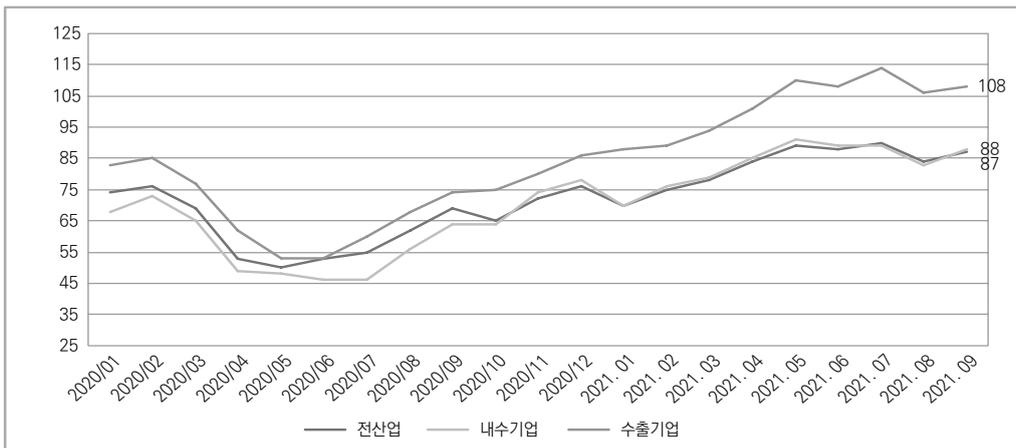
- 주요국의 경기회복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는 교역량 증가가 기업의 투자심리를 제고시키고, 제조업 생산증가로 이어지면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 갈 전망
- 다만, 신규 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정부의 겹겹이 규제는 설비투자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

〈그림 II-8〉 제조업 설비투자압력



자료: 통계청

〈그림 II-9〉 업황전망



자료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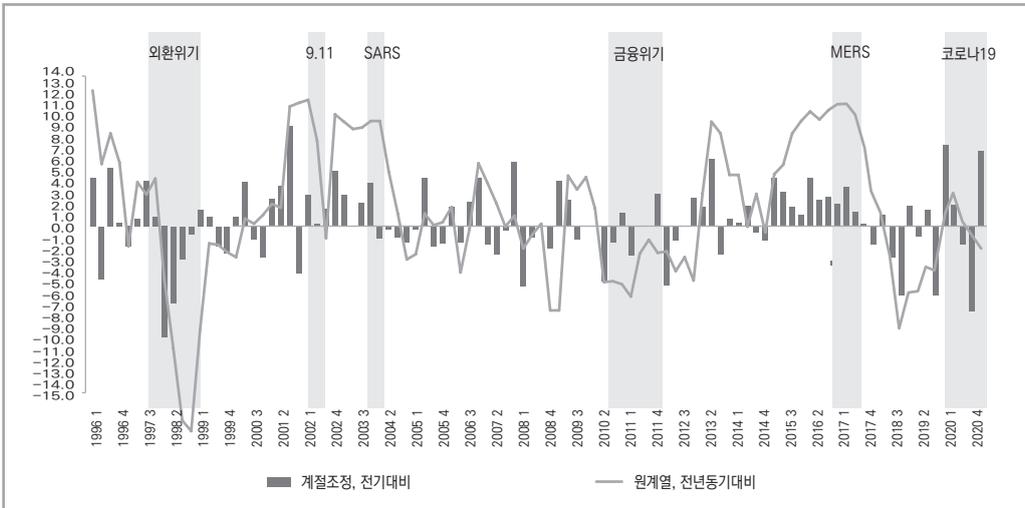
□ 건설투자: 2020년 -0.1%(상반1.7, 하반-1.8) → 2021년 1.1% (상반-1.6, 하반3.5)

○ 건설투자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영향 및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공업용 건물 건설 증가에 힘입어 하반기 이후 부진이 다소 완화될 전망

▶ 주요 위기별 설비투자 증감률

- ✓ 외환위기: -12.5% ('98.1Q~'98.4Q, 평균)
- ✓ 사스: 8.4% ('03.2Q)
- ✓ 금융위기: -7.3% ('08.4Q~'09.1Q, 평균)
- ✓ 메르스: 0.0% ('14.2Q)
- ✓ 코로나19: -0.1 (2020년)

〈그림 II-10〉 역사적 건설투자 증감률(1996~2016)

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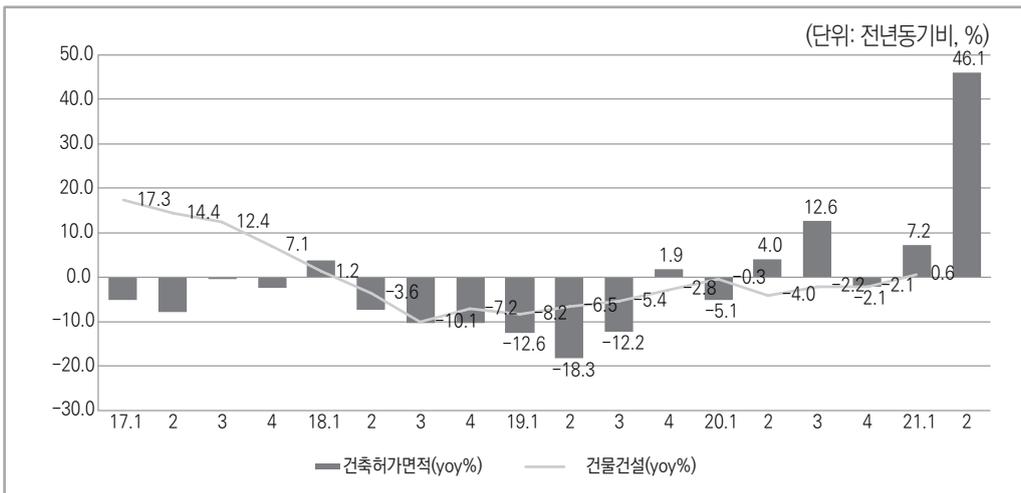
★ 금융위기 직후 회복률: 3.2%(2009.3Q) → 4.3%(2009.4Q) → 1.5%(2010.1Q) → -4.8%(2010.2Q) → -4.8%(2010.3Q)

○ 공공재개발 및 3기 신도시 등 정부주도의 건물건설이 증가하고, 현재 진행중인 토

목부문의 증가세에 정부의 SOC 확대 계획에 힘입어 수년간 지속되어 온 마이너스(-) 성장에서 플러스(+)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

- 주거용 건물은 정부의 공급대책에 따른 공공재개발이 2021년중 사업이 일부 개시됨에 따라 착공물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
- 비주거용 건물은 설비투자 회복에 따른 공업용건물 건설증가의 영향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
- 다만, 방역조치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건설현장에서 차질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건설투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

〈그림 II-11〉 건축허가 연면적 증가율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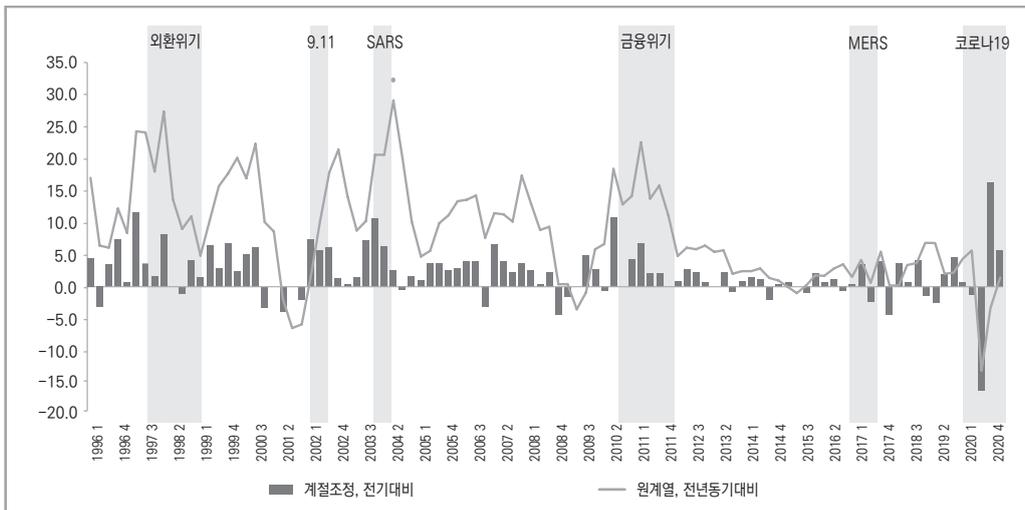
□ 실질수출: 2020년 -2.4%(상반-3.7, 하반-1.1) → 2021년 9.6% (상반13.2, 하반5.8)

- 수출은 미·중 등 주요국의 예상을 웃도는 빠른 경기회복으로 글로벌 교역량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반도체·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제품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적인 경기회복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

▶ 주요 위기별 수출 증감률

- ✓ 외환위기: 15.2%('98.1Q~'98.4Q, 평균)
- ✓ 사스: 8.8%('03.2Q)
- ✓ 금융위기: -0.9%('08.4Q~'09.3Q, 평균)
- ✓ 메르스: 2.8%('14.2Q)
- ✓ 코로나19: -2.4(2020년)

〈그림 II-12〉 역사적 수출 증감률(1996~2016)

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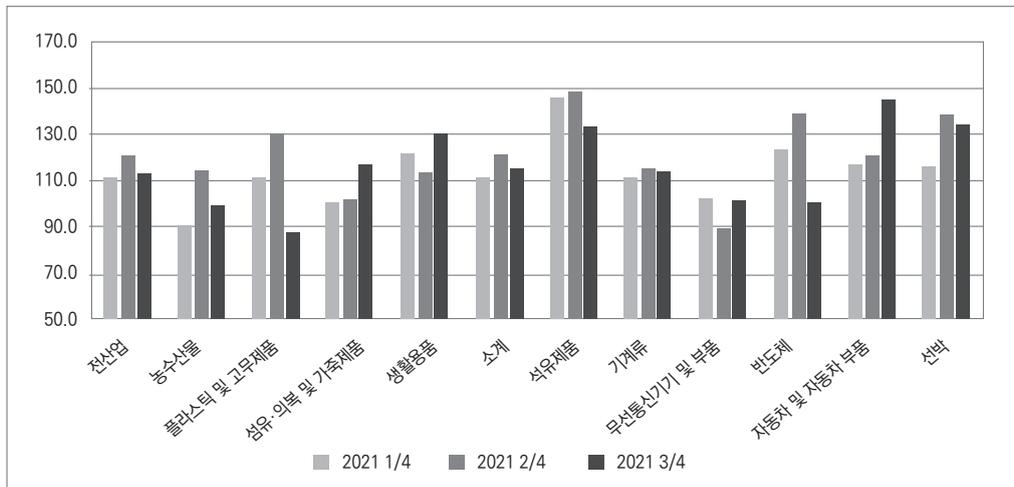
★ 금융위기 직후 회복률: -0.9%(2009.3Q) → 5.8%(2009.4Q) → 6.6%(2010.1Q) → 18.4%(2010.2Q) → 12.8%(2010.3Q) → 14.1%(2010.4Q) → 22.4%(2011.1Q) → 13.7%(2011.2Q) → 15.7%(2011.3Q) → 11.0%(2011.4Q) → 4.8%(2012.1Q)

- D램 가격의 상승률이 완만해지고 있으나 서버용 반도체에 대한 초과수요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리한 교역조건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
- 반도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저조한 기록을 보여오던 석유화학, 일반기계 부문이 주요국 경기회복 및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중

인 가운데, 신성장 품목인 바이오헬스, 전기차 등의 수출도 호조를 보이며 수출이 기저효과를 뛰어넘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

- 다만,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한 경기재위축 및 美바이든 행정부의 對 중국 무역갈등 가능성이 수출을 제한하는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여지가 존재

〈그림 II-13〉 품목별 수출경기(EBSI)



자료: 통계청

□ GDP 성장률: 2020년<sup>8)</sup> -1.0(상반-0.7, 하반-1.2% → 2021년 3.9%(상반3.9, 하반4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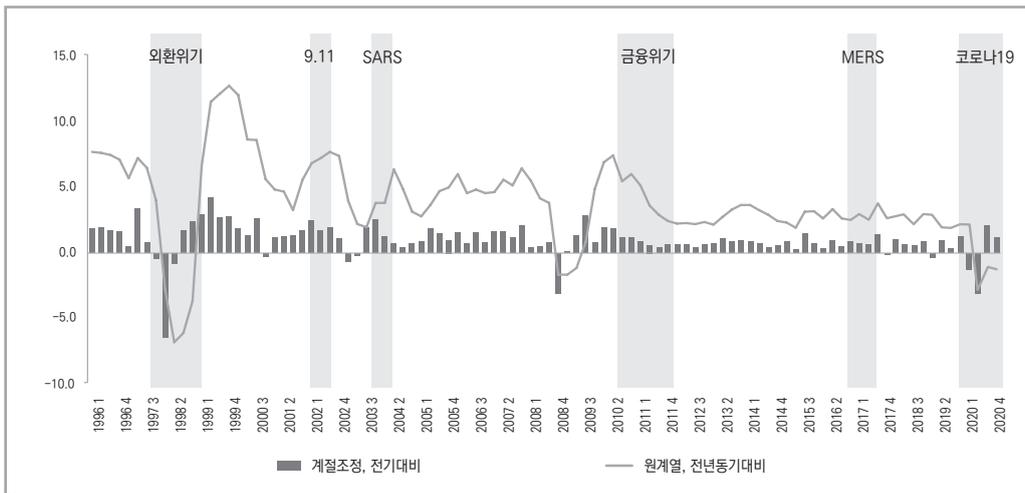
- 2021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에 따른 수출호조가 경제부문 전반을 견인하는 가운데 지난해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3.9%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
8) 2020년 국내총생산(GDP) 1,924 조원 기록, 1인당 국민총소득(GNI, GNI=GDP+해외순수취요서소득)은 31,755달러로 전년대비 1.1% 감소

## ▶ 주요 위기별 GDP 증감률

- ✓ 외환위기: -5.1%('98.1Q~'98.4Q, 평균)
- ✓ 사스: 2.3%('03.2Q)
- ✓ 금융위기: -1.5%('08.4Q~'09.2Q, 평균)
- ✓ 메르스: 3.4%('14.2Q)
- ✓ 코로나19: -1.0(2020년)

〈그림 II-14〉 역사적 GDP 증감률(1996~2016)

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- ★ 금융위기 직후 회복률: 0.9%(2009.3Q) → 5.2%(2009.4Q) → 7.3%(2010.1Q) → 7.9%(2010.2Q) → 5.8%(2010.3Q) → 6.3%(2010.4Q)
- 수출호조 이외에도 작년 낮았던 실적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금년 높은 수준의 성장률에 복합적으로 작용
- 반기별로는 상반기(전년동기비 3.7%)에 비해 기저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작용하는 하반기에 실적이 소폭 높게 나타날 전망

- 다만, 여전히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한 원활한 수습 여부가 2021년도 경기흐름의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, 원활한 백신접종에 따른 연중 집단면역 가능 여부 등이 잠재적인 불안요소로 남아 있는 상황

■ 통화정책

- ✓ 지난 8월에 이어 연내에 한차례 더 금리인상이 이뤄질 가능성
- ✓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, 기업부채가 금리인상 현실화로 인해 금융시장 내에 신용경색 및 신용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,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이 투기성 자산에 몰리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

■ 재정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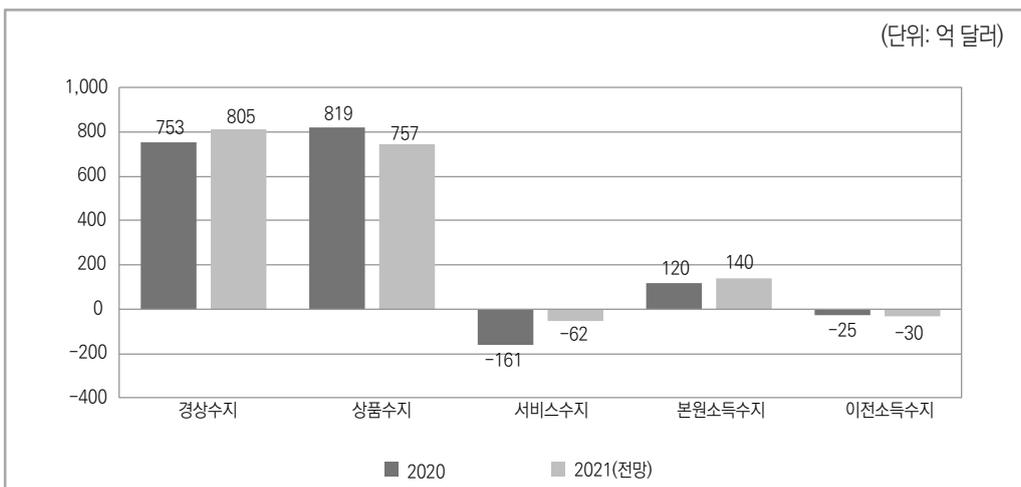
- ✓ 2021년도 예산안은 2020년 대비 8.5% 늘어난 555.8조 원으로 확장적으로 편성(2020년에 비해 32조 원 증액)되었으며, 2022년도 예산은 2021년도에 비해 48.6조 원 증액된 604.4조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총수입은 548.8조 원에 불과해 이미 1,000조 원을 돌파한 국가채무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
  - ✓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은 자명하지만 무분별한 이전지출 남발보다는 기업 및 가계에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는 한편, 재정지출 효율화를 면밀히 진행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
- 다음과 같은 불안요인들의 향후 성장률 전망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
    -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수습 여부가 향후 성장경로의 향방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백신보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경기회복은 하반으로 갈수록 미약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
    - 변종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세 재점화 따른 경기 급랭 및 추가급락 가능성
    - 원자재가격 및 물류비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
    - 대외적 리스크로는 국제 원자재 공급망 혼란, 미·중 무역갈등 심화 및 중국경제의 경기회복세 둔화

## (2) 경상수지

□ 경상수지: 2020년 753억 달러 흑자(상반 191, 하반 562) → 2021년 805억 달러 흑자(상반 443, 하반 362)

- 경상수지는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늘고 수입 역시 국내 설비투자 회복에 따라 동반하여 증가하게 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805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전망
  - 상품수지는 반도체·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의 호조뿐만 아니라 신성장 수출 품목의 선전이 지속되며 흑자를 기록할 전망
  - ✓ 다만,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보다 수입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됨에 따라 흑자규모는 기대치를 밑돌게 될 전망
  - ✓ 수입의 빠른 증가는 국내 내수회복 및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
    - 서비스수지는 전체적으로 적자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행수지와 운송수지의 적자는 교류재개 등의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
- 다만, 국제유가의 강세기조 지속은 수입을 증가시켜 상품수지 흑자폭을 줄일 가능성 역시 상존

〈그림 II-15〉 경상수지 항목별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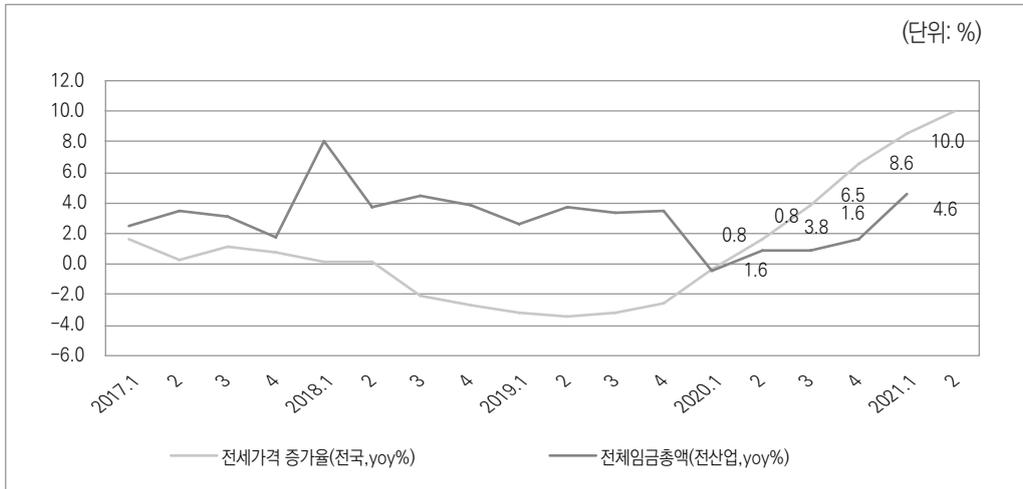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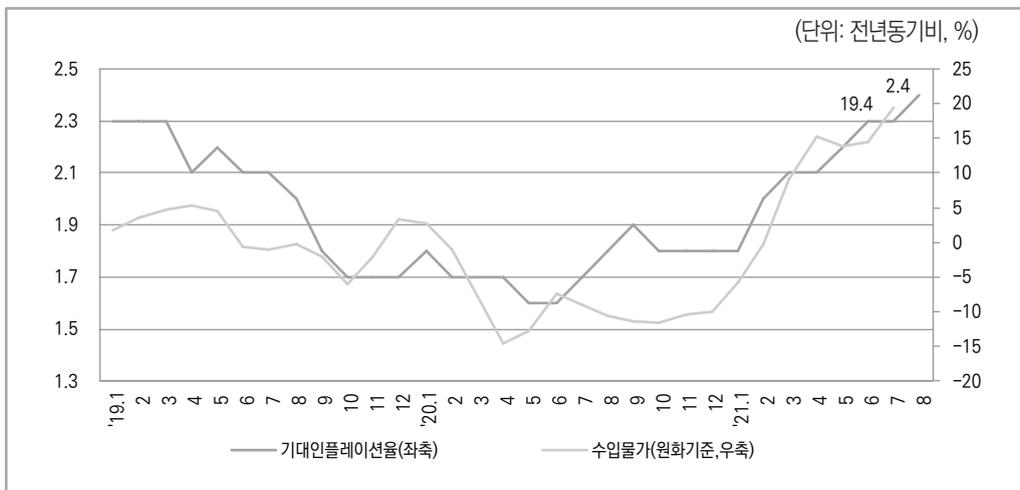
### (3) 물가

- 소비자물가: 2020년 0.5%(상반 0.6, 하반 0.6) → 2021년 2.0%(상반 1.8, 하반 2.3)
- 물가상승은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폭이 확대되며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한 2.0%를 기록할 전망
-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확대 흐름 가운데, 국제유가의 빠른 상승세, 집세 등 거주비 상승, 그리고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체 물가 수준을 견인
  - 연초 1% 중반 수준에 머물던 기대인플레이션은 현재 2.4%까지 상승
  - 높은 상승세를 지속해 오다 상승세가 축소되었던 농축수산물 가격은 최근 폭염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다시 확대
  - 강세흐름으로 반전된 환율 역시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주며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
- 다만, 유가상승 및 농축수산물 가격으로 인한 물가상승 효과는 하반기로 갈수록 약화될 전망
-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, 고령화, 급증한 가계부채 등 소비부진의 구조적 요인들 역시 물가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

〈그림 II-16〉 전세가격, 임금총액



〈그림 II-17〉 수입물가, 기대인플레이션율



자료: 한국은행, 통계청

#### (4) 원/달러 환율 및 주식시장

□ 원/달러 환율: 2020년 1,190원/달러 → 2021년 1,145원/달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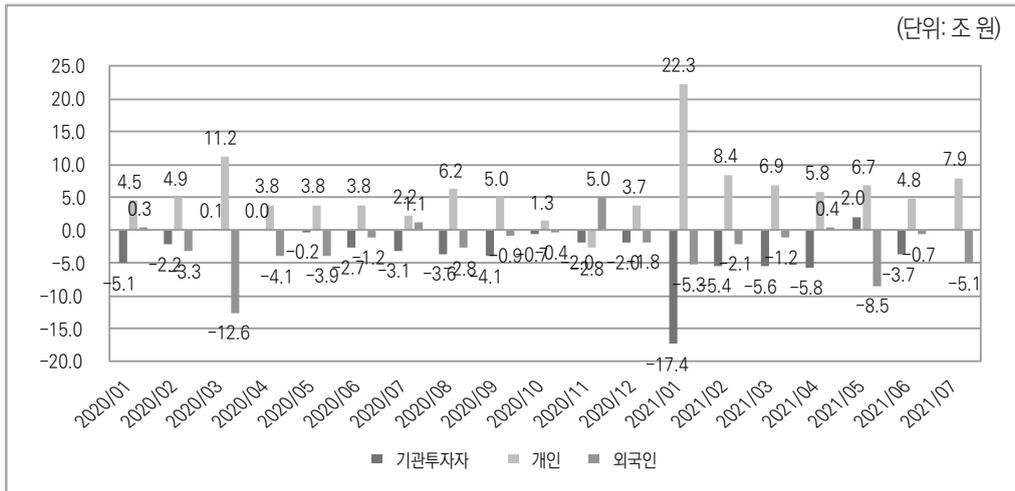
- 美연준의 양적완화 기조 지속 및 미국 外 주요국의 경기개선에 따른 영향으로 약보합세를 보여오던 환율은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점차 강화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현실화됨에 따라 美연준이 테이퍼링 시기를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중 강세흐름을 지속할 전망
  - 美경기회복이 신속하게 이뤄지며 미국으로의 자금유입이 증가
  - 5월 인플레이션 쇼크(소비자물가 상승률 5% 기록)에 이어 6월 FOMC에서 정책금리 및 자산매입 규모를 동결
  - 동시에 올해와 내년의 경제전망을 상향 조정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
- 다만, 현재까지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국의 대외건전성 및 외환보유고, 美 재정적자의 과다한 누적에 대한 우려는 달러화에 대한 약세요인으로 동시에 작용

〈그림 11-18〉 원/달러, 달러 인덱스



자료: 한국은행, 국제금융센터

〈그림 II-19〉 투자자별 주식 순매수



자료: 한국은행

- 주식시장: 외국인 및 기관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반면 내국인의 주식투자는 영끌·빚투에 매몰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최근까지도 매수세가 확대되며 7월중 투식순매수는 8조 원에 육박. 코스피 지수는 32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
-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한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주식시장에 투자해 온 영향으로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매도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
-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하는 가운데 전염병 확산세가 줄어들지 못하는 효과가 서로 상충하게 되면서 증시는 당분간 높은 변동성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

〈표 11-5〉 2021년 국내 경제전망

(단위: 전년동기대비(%), 억 달러(국제수지부문))

|             | 2019년 | 2020년 |      |      | 2021년 |     |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|-----|
|             | 연간    | 상반    | 하반   | 연간   | 상반    | 하반  | 연간  |
| GDP         | 2.0   | -0.7  | -1.2 | -1.0 | 3.9   | 4.0 | 3.9 |
| 민간소비        | 1.9   | -4.4  | -5.5 | -5.0 | 2.4   | 3.3 | 2.8 |
| 건설투자        | -3.3  | 1.7   | -1.8 | -0.1 | -1.6  | 3.5 | 1.1 |
| 설비투자        | -8.1  | 5.6   | 8.0  | 6.8  | 12.3  | 5.7 | 9.0 |
| 지식생산물투자     | 2.7   | 3.3   | 3.6  | 3.5  | 4.3   | 4.1 | 4.2 |
| 수출(재화+서비스)  | 1.7   | -3.7  | -1.1 | -2.4 | 13.2  | 5.8 | 9.6 |
| 수입(재화+서비스)  | -0.5  | -3.8  | -4.0 | -3.9 | 8.9   | 7.8 | 8.3 |
| 소비자물가       | 0.4   | 0.6   | 0.6  | 0.5  | 1.8   | 2.3 | 2.0 |
| 경상수지(억 달러)  | 600   | 191   | 562  | 753  | 443   | 362 | 805 |
| 상품수지(억 달러)  | 768   | 251   | 568  | 819  | 382   | 375 | 757 |
| 서비스수지(억 달러) | -230  | -95   | -66  | -161 | -29   | -33 | -62 |
| 실업률(%)      | 3.8   | 4.3   | 3.8  | 4.1  | 4.5   | 3.3 | 3.9 |

# keri 경제동향과 전망

1판 1쇄 인쇄 / 2021년 9월 28일

1판 1쇄 발행 / 2021년 9월 30일

발행처 / 한국경제연구원

발행인 / 권태신

편집인 / 권태신

등록번호/제1982-000003호

(07320)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6층

전화(대표) 3771-0001

<http://www.keri.org/>

© 한국경제연구원, 2021

